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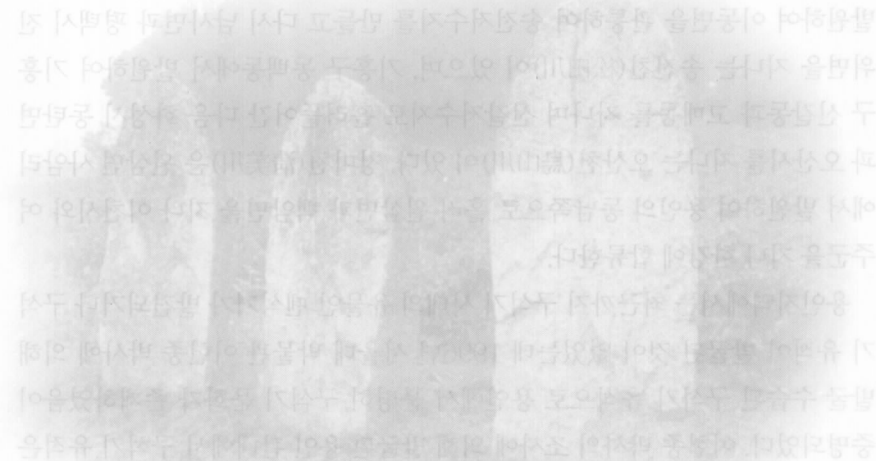
제2편 삶의 내력과 자취

원삼의 역사와 문화유산





제1장 원삼의 역사



제1절 근대 이전 원삼

1. 선사시대

경기도에 속한 용인지역은 한반도 중앙부를 가로지르며 넓은 유역을 가지고 있고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한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이 가까이 위치하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용인지역에는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수량을 지닌 하천 및 평야가 분포하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선사시대 용인지역에 사람과 문화의 유입은 하천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는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에 이르는 시기에 찬란한 선사 문화가 발달해왔던 한강유역과 많은 관련이 있다.

용인지역의 주요 하천 중 한강이나 서해안과 직접 연결되어 선사시대 유물이 발굴된 하천으로는 경안천(慶安川) · 송전천(松田川) · 탄천(炭川) · 청미천(淸美川)등이 있다. 이중 북쪽으로 흘러 한강과 합류하는 하천으로는 호동에서 발원하여 김량장동과 유방동 포곡면과 모현면을 관통하여 광주시를 지나 팔당에서 한강에 합류하는 경안천(慶安川)이 있으며, 기흥구 청덕동에서 발원

하여 구성과 수지를 지나 성남시 분당구를 관통하여 한강에 이르는 탄천(炭川)이 있다.

또 남쪽으로 흘러 진위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는 이동면 서리(西里)에서 발원하여 이동면을 관통하여 송전저수지를 만들고 다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을 지나는 송전천(松田川)이 있으며, 기흥구 동백동에서 발원하여 기흥구 신갈동과 고매동를 지나며 신갈저수지로 흘러들어간 다음 화성시 동탄면과 오산시를 지나는 오산천(烏山川)이 있다. 청미천(淸美川)은 원삼면 사암리에서 발원하여 용인의 동남쪽으로 흘러 원삼면과 백암면을 지나 이천시와 여주군을 지나 한강에 합류한다.

용인지역에서는 최근까지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뗀석기가 발견되거나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것이 없었는데 1996년 서울대 박물관 이헌종 박사에 의해 발굴 수습된 구석기 유적으로 용인에서 분명히 구석기 문화가 존재하였음이 증명되었다. 이헌종 박사의 조사에 의해 발굴된 용인 관내에서 구석기 유적은 경안천과 송전천 유역에 분포하는데 모현면 갈담리 파담마을, 이동면 천리 일화공장 뒤 구수동 마을 또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이렇게 세 곳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구석기인들은 식량을 찾아 이동생활을 주로하기 때문에 물고기 등 식량이 풍부하고 이동하기 편리한 하천을 중심으로 유적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용인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은 후기 구석기 시대 한강에서 분리된 경안천이나 서해를 통해 진위천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이 우리 용인지역에서 얼마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또 현재 용인 지역 사람들과의 혈통적 관련성도 희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구석기 시대 용인에서도 엄연히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데서 의의가 크다.

원삼면 지역 역시 목신리 신촌 마을에서 석영제 석기와 박편이 발견되어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1] 이것은 같은 한천(漢川)을 끼고 인접해 있는 안성 고삼면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서해를 통해 안성천과 한천을 경유하여 상류인 목신리 까지 구석기인들이 들어와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삼면의 목신천 주변인 목신리나 죽릉리 지역과 한강으로 연결되는 청미천 주변의 맹리나 미평리 지역은 또다른 구석기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역시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용인에서도 그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어 큰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이 가

1) 최몽룡 외. 『용인시의 문화유적』. 서울대박물관. 1996. p.35

능한데 원삼면 지역도 청미천 유역에 청동기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신석기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신석기 인들은 농경이 시작되면서 농사짓기가 편리한 큰 하천이나 바닷가 유역에 주거지를 만들어 정착생활을 한 것으로 보아 청미천에 의한 충적평야가 발달된 미평리와 가재월리는 어느 지역에 비해 신석기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세심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청동기 시대 용인은 경안천 · 진위천 · 탄천 · 청미천 등 여러 하천이 지나가며 만들어진 발달된 충적 평야를 바탕으로 농토가 비옥하고 농경이 발달하였으며 인구가 증가하여 강력한 지배력을 지닌 집단의 출현을 가져왔다. 물론 이것은 용인의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지배자의 무덤으로 보이는 고인돌과 각 부족 또는 집단의 영역 및 신성 지역의 표시로 보이는 선돌을 보면 알 수 있다.

원삼면 지역에서 청동기 유적이 있는 곳은 사암리 일대 · 좌항리 · 맹리 등 청미천 상류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사암리에는 다수의 지석묘와 입석군(立石群)등 특히 많은 청동기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당시 이 일대의 발달된 농업 생산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밖의 청동기 유적으로는 좌항리의 고인돌과 맹리의 고인돌이 있다. 이들 유적은 확실하게 고인돌로 단정할 수는 없을 정도로 원형과 위치가 변형되었지만 고인돌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어 남방식 고인돌로 보고 있으며 미평리에 있는 약사여래불은 얇은 판석에 조성하였고 주변에 있는 유구를 보면 규모가 꽤 큰 고인돌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

청동기시대 유물이나 유적은 더 발견될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을 보면 사암리와 좌항리 맹리 미평리 등지의 발달된 충적 평야를 바탕으로 한 농업생산력에 의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킨 세력가의 존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 이 미평리 불상을 답사한 국립 중앙박물관 조용중 학예연구관은 고인돌을 이용하여 불상을 조성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암리 선돌 (沙岩里立石)



〈지도2-1〉 용인 사암리 입석군 위치도

향토유적 제22호

- 소재지 : 사암리 내동마을
- 시 대 : 청동기 시대
- 재 질 : 화강암
- 크 기 : 200~330㎝



2:1 사암리 입석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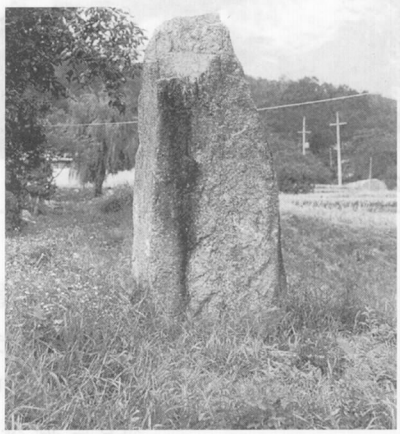
이 선돌군은 392번 국도변에서 곱등고개를 향해 가다가 내동마을 입구에 있다. 마을에서는 이 선돌군(立石群)이 있는 부근을 '선돌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은 '선돌백이'의 변형으로 보인다. 선돌은 서 있는 돌(立石)이고 '뱅이'는 '박이', '백이'의 변음으로 터나 장소가 합성된 지명으로 보인다. 또 '붕어바위'라고 부르는데 이는 바위의 모습이 마치 물고기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이곳 마을 사람들 역시 이 돌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돌이 주변 논 가운데에도 하나가 있었으나 논 주인이 농사를 짓는데 장애가 된다하여 일부는 깨어내고 일부는 땅에 묻었다고 전한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이 죽었음으로 사람들은 재앙을 받았다고 여겨왔다. 또 매년 가을 마을 사람들이 떡을 해 놓고 치성을 드리고 있다든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예부터 마을에서 신앙의 대상물로 섬겨온 유물임을 알 수 있다.

이 선돌은 마치 원형통의 돌을 세 쪽으로 갈라놓은 것과 같은 모양인데 가장 남쪽에 있는 돌은 높이 330㎝, 폭 100㎝, 두께 35㎝이며 단면은 반원형이다. 가운데의 것은 높이 220㎝, 폭 100㎝, 두께 37㎝로서 단면은 장방형이며 북쪽의 것은 높이 290㎝, 폭 100, 두께 30㎝ 정도인데 단면은 남쪽의 것과 같이 반원형 꼴이다.

일반적으로 2개의 선돌이 마주 보거나 나란히 서 있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이 3개의 선돌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두창리(杜倉里) 선돌(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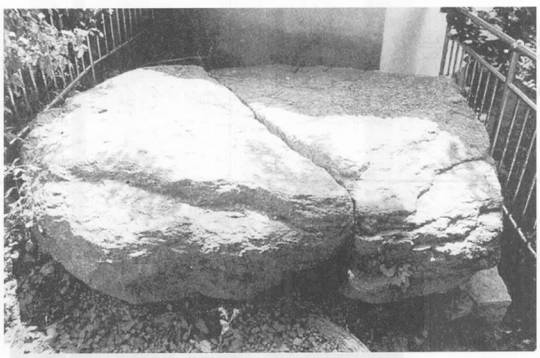
- 소재지 : 두창리 골안(州內)
- 시 대 : 선사시대(추정)
- 재 질 : 화강암
- 크 기 : 높이 189㎝, 폭 66㎝, 두께 37㎝



2:2 두창리 입석

두창리 골안 이희남 소유 논뚝에 서있는데 1996년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의 답사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 돌은 정동으로 서있으며 돌 앞쪽에 105×62×20㎝ 규모의 장방형 판석이 놓여 있었고 측면과 후면에도 이와 크기가 비슷한 장대석이 놓여 있다. 이 마을 사는 윤영구(당시 52세)씨는 "지금부터 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정월 보름날 제를 지낸 후 가가호호에서 호주의 성명 · 생년월일을 적은 백지를 불사르는 소지의 예가 행하여졌으며 불공을 드리거나 만신이 왼새끼를 꼬아 돌에 돌리고 푸닥거리를 했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원래 시루떡이나 주과포를 단에 진설하고 치성을 드렸으며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습속이 있었고 동제를 지낼 때에는 대개 잡귀를 쫓고 역질을 막아주며 마음의 안녕과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이 선돌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문장이자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주민생활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선돌은 골안 마을 입구에서 동북간을 향하고 있으며 장대석과 제단석이 놓여진 점, 돌의 크기와 주변에 이와 같은 돌을 볼 수 없는 점 등이 고대로부터 전해 오는 입석으로 신성시 되어온 것임을 짐작케 한다.



2:3 맹리 지석묘 전경

맹리 고인돌(孟里 支石墓)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68호

- 소재지 : 맹리 235번지
- 시 대 : 청동기시대
- 재 질 : 화강암
- 크 기 : 길이 3m, 폭 2.8m, 두께 0.6m

맹리 고인돌은 맹골 마을회관 옆에 있다. 현재는 고인돌의 구분에 있어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남방식으로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고인돌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지석묘는 개석의 머리부분을 비롯한 가장자리에 인공적으로 판 잔 모양의 구멍이 있는데 이는 성혈(性穴) 또는 별자리로 알려지고 있으며 크기는 지름 3~12㎝, 깊이는 1~7㎝에 이르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피장자의 자손을 표시한 것이거나 묻힌 시체의 수 또는 연령 같은 것을 나타내려 한 것일 수 있다는 등의 설이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학설은 없고 최근의 연구 결과 하늘의 별자리를 새겨놓은 것이라는 학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종래의 학설로는 불씨를 만드는데 생긴 구멍, 태양 숭배사상의 표현, 풍요와 다산의 상징적 의미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장축은 동-서간이고 지상으로부터 30㎝의 높이를 이루고 있으며 개석이 반으로 갈라져 20~30㎝의 틈새를 보이고 있다. 발견 당시 마을주민인 최용출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간격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간격이 더욱 벌어진 상태로 철책으로 보호되고 있다.

사암리 추정지석묘군

▸ 소재지 : 사암리 828일원
▸ 시대 : 청동기
▸ 종류 :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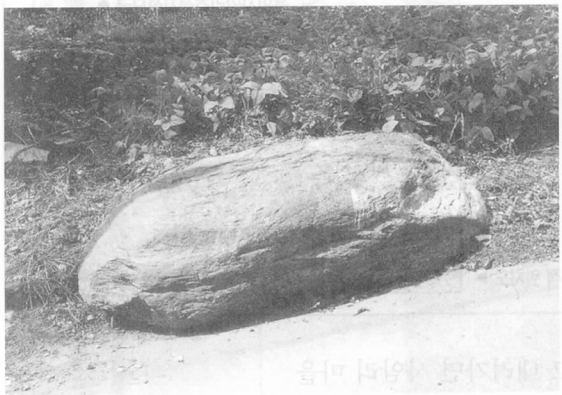
〈지도2-2〉 사암리 지석묘 및 주변유적 위치도 ▶

사암리 지석묘에서 남쪽으로 작은 포장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사암리 마을회관이 보이고 마을회관 앞의 작은 놀이터 옆에 여러개의 암석군이 위치한다. 이 유적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졌으며 상면에 성혈이 있는 상석을 비롯하여 주변에 지석묘 상석으로 보이는 암석이 다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 지석묘군의 서편으로는 해발 404m의 문수봉이 솟아있는데 유적은 이 문수봉에서 동편으로 흘러나온 가지능선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변에는 놀이터 옆의 암석군 외에도 다수의 암석들이 군을 이루고 있어 가옥의 담장이나 쉼터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암석군은 문수봉 자락 일대에 다수 산재하는 것들이며 따라서 사암리 지석묘로 알려진 이 유적 또한 그러한 종류의 자연 암석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바위 상면에 나타난 성혈흔 등은 설사 청동시대의 것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민속학적으로 그 중요성이 확실한 것들이고, 또 이 암석군이 지석묘들이 아니라고 단정할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인 만큼 향후 보다 적극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성격이 밝혀질 때까지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노출된 암석군 중 지석묘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2기 가량이며 이외에도 다수의 암석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토사에 묻혀있어 정확한 현상파악이 어렵다. 놀이터의 경계석과 인접한 1기는 규모가 길이 285cm, 너비 73cm, 현재 높이 55cm이며 전체적인 형태가 장대형이다. 현재는 인근 농업기술센터 내로 옮겨져 있어 원형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른 1기

는 상면의 일부만 노출되어 있는데 노출된 상면에 5개가량의 성혈이 보인다. 이 성혈 중 큰 것은 지름 8cm, 깊이 3cm 가량이며 전체적인 형태와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2:4 사암리 지석묘 전경



2:5 사암리 추정지석군묘 전경



2:6 사암리 추정지석군묘 근경



2:7 사암리 추정지석군묘 상석 성혈



2:8 사암리 추정지석묘 전경

사암리 추정지석묘

- 소재지 : 사암리 산 189-1 일원
- 시 대 : 청동기
- 종 류 : 지석묘

사암리 사암주유소 앞 네거리에서 동편으로 뻗은 소규모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타고 미평리쪽으로 넘어가다보면 해발 150m 가량의 용머리산 북쪽에 나타난다. 이 용머리산 동편 자락을 따라 난 포장도로를 타고 가다가 생안마을 뒤편으로 올라가는 소로를 타고 산정부 쪽으로 가다보면 능선 정상부를 따라 난 산길에 이르는데, 이 산길을 타고 가다보면 산길 중간에 판석형의 암괴가 노출되어 있다.

두께가 얇은 판석형태여서 전적으로 지석묘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에 다른 암석이 보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치석한 흔적이 엿보이며 야트막한 산정부에 위치한 점 등에서 지석묘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석묘의 형태는 장방형의 판석형태여서 재질은 화강편마암이다. 규모는 길이 320cm, 너비 140cm이며 두께는 상당부분이 토사에 묻혀 있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 20cm 내외로 얇은 편이다. 장축방향은 N-70 E로 대략 동서방향이라서 능선방향과는 직교하고 있다.



〈지도2-3〉 용인 좌항리 추정지석묘 위치도

좌항리 추정지석묘

▸ 소재지 : 좌항리 314일원
▸ 시 대 : 청동기
▸ 종 류 : 지석묘

좌항리 관터말에서 사암리쪽으로 난 392번 지방도를 타고 가다가 대림 콘크리트공장 앞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나간 야트막한 소규모 구릉지의 동사면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능선 정상부와 하단부 자락을 따라 수 기의 민묘가 군을 이루고 있으며 이 민묘들 사이에 구형에 가까운 화강암 재질의 암석이 박혀있다.


2:9 좌항리 추정지석묘 전경

주변에서 다른 암석이 보이질 않거니와 입지상으로도 능선부에 있고 남쪽으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소하천이 발달해 있어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주된 입지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상태만으로는 지석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 노출된 암석은 구형에 가깝고 수직으로 쪼개져 2매로 나뉘어진 상태이다. 하단부는 땅에 묻혀있어 원형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지석묘가 맞다면 개석식일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120m, 폭 90cm, 높이 85cm이다.

2.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이후 통일 신라시대까지 원삼면을 포함한 용인 지역의 발전 과정에서 한강이 차지한 역할은 매우 크다. 한강 유역은 한반도 중심에 있으면서 유역이 넓어 내륙과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평야가 발달해 있으며 또 서해를 이용 중국과 교류하는데 매우 유리하여 삼국은 서로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였고 한강 유역의 지배자가 항상 한반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용인 지역은 삼국이 정립되면서 한강의 지배세력과 항상 그 운명을 같이 해왔는데 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5세기경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어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고 다시 6세기에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 다시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가 곧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가 나중에 삼국이 통일되면서 통일신라의 영토로 이어진다.

이렇게 삼국시대 정치 군사적 격변 속에서 용인은 전략상 매우 중요시되었는데 용인지역 곳곳에 산재한 삼국시대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성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용인지역의 발전과정은 백제의 성장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강 유역의 수로를 이용하여 주변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백제는 한강의 지류를 이용하여 내륙으로 진출해 갔다. 따라서 용인지역을 흐르는 한강의 지류로는 경안천(慶安川), 탄천(炭川), 청미천(淸美川)이 있는데 이들 하천을 통해 백제 세력이 진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용인지역 대부분은 목지국(目支國) 등의 마한세력에서 벗어나 백제의 영역으로 흡수되었던 것이다.

원삼면을 포함한 용인지역은 백제세력이 진출하여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판단하여 산성과 토성들을 축조하였다. 용인지역에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 및 토성으로는 축성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구(舊) 구성읍 지역과 구(舊) 용인읍 및 포곡읍 경계선상 위치한 석성산의 석성지(石城址)와 할미성이 있는데 성지에서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다.

원삼면의 토성 유적으로 양지 · 백암간 도로 확장으로 성의 대부분이 훼손된 행군리 토성지와 근처에 태봉산 토성지가 있다.

행군리 토성지는 맹리 행군 마을에 있는 토성지로 삼국시대 용인은 백제 고구려 신라가 교차하는 곳으로 인근에 있는 규모와 모양이 비슷한 처인성이 백제때 축조된 것이라는 이선근박사의 주장처럼 백제나 고구려가 지배했을 당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제기 되고 있다.[4]

태봉산 토성지 역시 양지면과 원삼면 접경지인 좌항리 마을 뒷산으로 태봉산의 8부 능선을 테를 두른 형태의 테뫼식 산성으로 이 역시 근처에 있는 행군리 토성의 보조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이인영, 『내고장 용인 문화유산 총람』, 용인문화원, 1997. pp.119-120

행군이 토성

▸ 소재지 : 맹리 행군마을

▸ 시　대 : 삼국시대(추정)





2 : 10 행군이토성 성 내부 전경(좌)

2 : 11 행군이토성 성벽 절단 면(우)

양지면에서 17번 국도를 타고 남쪽방향으로 달리면 죽산, 진천으로 이어지는 옛 교통로가 있는데, 이 길은 조선시대의 역로이면서도 봉수가 통과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다. 역로길은 서울 양재역 – 구흥역 – 금령역 – 좌찬역 – 분행역을 통해 충주방면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교통로이고, 봉수는 경기도 광주의 천임산 – 용인의 보개산 – 건지산 – 죽산의 망이산으로 연결되는 제2노선의 봉수로이다.

행군이 토성은 좌찬역과 건지산을 거점으로 하는 교통의 요지에 낮은 구릉을 이용하여 축조한 토성이다. 이 토성은 북쪽의 태봉산(309m)을 등지고 서고동저의 지형을 한 장방형(長方形)의 토성인데, 성 내부는 비교적 평탄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성 내부의 대부분은 농경지 및 산림지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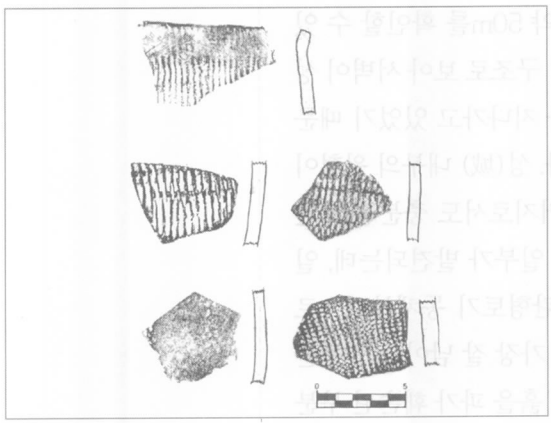
성벽은 동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로의 개설과 농경지의 개간을 통해 상당한 부분이 파괴되었다. 이 토성의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의 이인영, 정양화에 의해 토성의 실체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들의 1985년도 조사 기록에 의하면 동벽 약 420m , 서벽 240m, 남벽 50여m, 북벽 176m, 폭 약 2m에 바깥쪽의 높이는 2~4m, 안쪽은 1.5m 정도인데, 같은 해인 6월 16일 3차 답사 결과 이 토성이 정남향으로 100여m 이상 더 연결되어 직각으로 꺾여진 흔적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 성의 규모가 약 1.4km 정도였다고 하였다.(이인영, 『내고장 용인 문화유산 총람』, 1997) 1998년 12월 26일 필자의 답사 시에는 성벽으로 축조된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는 부분은 북벽 약 117m, 동벽 약 340m, 서벽 약 50m정도였다.

1985년도의 조사기록은 동벽에서 남벽으로 꺾어지는 회절부에는 논과 밭의 유단 경작으로 인해 논보다 높은 지형을 가진 밭을 따라 토성의 축이 연결되었다고 가정하여 실측했을 수도 있겠다. 북벽의 성체가 완연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동벽에서 회절되어 서쪽방향으로 약 117m인데, 체성의 안팎을 파서 그 흙으로 돋우어 쌓아서(성토법) 외황과 내황이 남아 있다. 외황의 폭은 3.4m정도이고, 외벽 높이는 약 2.9m, 내벽의 높이는 약2.4m이다. 성벽 위의 폭은 약 2.9m이며, 외벽은 경사도 약 70°, 내벽의 경사도는 약 45°이다.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공장 건물의 뒤편에 북벽으로 추정할 수 있는 둔덕이 약 100m정도 있는데, 그 선을 따라 신설된 4차선도로 건너편의 야산으로 이어진 토성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토성의 성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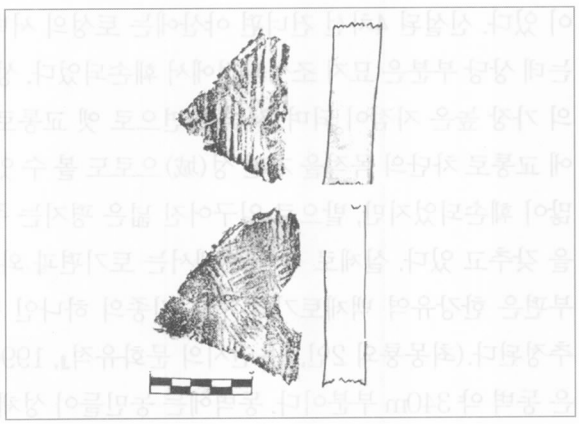
이 있다. 신설된 4차선 건너편 야산에는 토성의 서벽 약 50m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은 묘지 조성과정에서 훼손되었다. 성의 구조로 보아 서벽이 성의 가장 높은 지점이 되며, 서벽 사면으로 옛 교통로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로 차단의 목적을 가진 성(城)으로도 볼 수 있다. 성(城) 내부의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밭으로 일구어진 넓은 평지는 주거지로서도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성 내부에서는 토기편과 와편 일부가 발견되는데, 일부편은 한강유역 백제토기의 주요 기종의 하나인 장란형토기 동체부편으로 추정된다.(최몽룡외 2인, 『용인시의 문화유적』, 1996) 가장 잘 남아있는 부분은 동벽 약 340m 부분이다. 동벽에는 농민들이 성체의 흙을 파가 훼손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으며, 그 중에는 성체가 절단된 부분도 있다. 절단된 부분의 토층을 살펴보면 판축한 것이 아니라 성토하여 축성한 것으로 보이며, 절단된 성체를 기준으로 하여 기단부의 폭은 약 6m, 상부의 폭은 약 3.3m, 높이 1.7m정도이다. 새로 개설된 17번 국도에서 토성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 소로길이 있는데, 이 길의 동벽 사면에서 북쪽방향으로 약 90m 지점에 동문지가 남아있다. 동문지의 폭은 약 4.4m이며 양쪽 문 벽이 서로 엇갈리게 하여 축조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축성하였다.

행군리 토성에서 유물이 수습된 곳은 용인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17번 국도의 왼쪽편 토성내의 밭이다. 여기서 약간의 토기편과 와편이 수습되었으며 행군리 토성의 다른 곳에서는 토기편이나 와편을 발견할 수 없었다.

행군리 토성에서 수습된 유물은 토기편, 자기편, 질그릇편, 기와편 등이다. 행군리 토성의 수축시기와 관련해 주목할 유물은 회색 계통의 연질 · 경질의 타날문 토기편들이다. 토기편들은 삼국시대 백제 계통의 토기편들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토기편들과 유사한 것이 한강 유역 백제 토기의 주요 기종의 하나인 장란형 토기 동체부편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최몽룡외 2인, 『용인시의 문화유적』)가 있었다. 또한 용인 지역과 인접한 충청북도 북부지방에 위치한 증평에 있는 이성산성의 조사 보고서(충청전문대학, 『증평 이성산성』, 1997)에서도 행군리 토성 토기편의 문양과 같은 백제토기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 백제시대 토기편들은 토성의 축조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자기편, 질그릇편, 기와편들은 고려 · 조선시대의 것들로 이곳이 계속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였음을 보여준다.



수습 토기편 탑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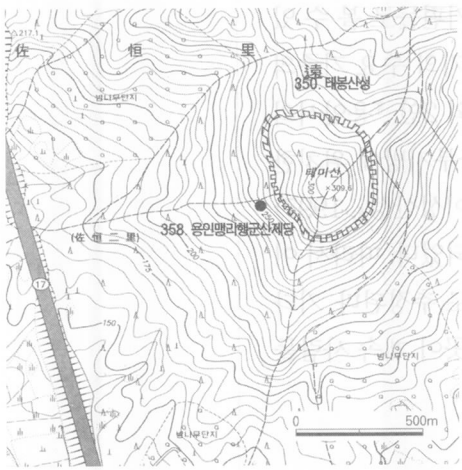
수습 기와편 탑본



2:12 행군리토성 동문지



2:13 행군리토성 북벽 외황



태봉산성

- 소재지 : 좌항리
- 시 대 : 삼국시대(추정)

◀ <지도2-4> 태봉산성 및 주변유적 위치도



2:14 태봉산성 전경

태봉산성은 행군리토성과 구릉으로 연결되는 북쪽의 태봉산(309m) 정상에 쌓았다. 태봉산은 1996년도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1/5000지도에는 태미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86)에는 태봉산, 테미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태봉산 동북쪽으로 조선시대의 봉수지인 건지산을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평창리 일대가 관망되고, 남쪽 방면으로는 17번 국도를 끼고 있는 넓은 분지의 미평리, 가좌월리 등지를 관망하기 좋다. 태봉산성에 대한 옛 문헌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1985년도에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정양화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 보고되었다.(이인영, 『내고장 용인 문화유적 총람』) 태봉산성은 산성의 지형적 조건이나 규모적인 면에서 볼 때 독립적인 산성의 기능을 한 성이라 보기보다는 행군리토성의 보조성으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본다. 행군리토성의 경우 멀리 관망하여 대처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태봉산이 점령당할 경우 산 정상에서 성 내부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산이므로 행군이 토성과 연계된 성으로 보인다.

태봉산성의 둘레는 약 248m 정도이다. 태봉산성은 산 9부 능선에 테를 두른 산정식 산성으로 성내의 산 사면을 파내서 넓이 6~8m정도의 회곽도를 만들고, 성밖의 사면은 삭토하여 급경사를 이루게 하였다. 특이한 점은 북벽과 남벽에는 긴 장방형의 참호 형태의 매복지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군사가 주둔하기에는 지형상 좁아 보인다. 북벽의 장방형의 참호의 크기는 26.3×3.4m이며, 내호의 깊이는 0.9m, 성토한 성벽위의 폭은 2.3m이다. 장병형의 참호 내에서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북벽의 참호는 북쪽의 능선을 타고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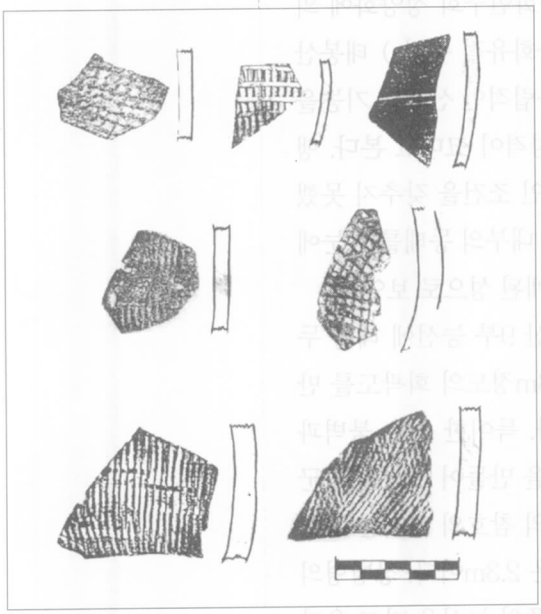
오는 적을 막기 위한 구조물로 보이며, 지금도 좌항 3리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나있다.



2:15 북벽

남벽의 참호는 13.8×3.4m이며, 내호의 폭은 3m, 내호의 깊이 0.7m, 내호의 높이 1.6m이다. 이러한 장병형의 구조물은 산성에서의 특이한 구조물이며, 전투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에만 만들고, 필요없는 지점은 별도로 토성으로 성토하여 시설을 하지 않고 지형을 가파르게하여 오르지 못하도록 삭토(削土)를 하고, 군사가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회곽도만을 두었다. 산정상은 비교적 평탄한 평지인데 39.2(남북)×37(동서)m의 크기이다. 정상한 가운데에는 크기 3.2×3m, 깊이 0.8m 정도의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 내부에는 별도의 석축 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성의 규모와 구조로 보아 장기 농성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며, 행군리토성의 보조성으로서 적군의 동태 파악 및 효과적인 작전에 필요한 지형적 조건을 갖춘 작은 보루성으로 볼 수 있다.

태봉산성 내에는 남쪽과 북쪽에 장방형의 참호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2개의 참호에서 수습된 유물은 토기편과 자기편, 질그릇편들이며 기와편은 없다. 양쪽 참호에서 동일한 종류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수습 토기편

태봉산성에서는 토기편을 비롯해 자기편과 질그릇편이 채집되었다. 여기서 수집된 토기편들로 태봉산성의 수축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봉산성과 바로 태봉산 아래 위치한 행군리토성과의 연관 관계 및 성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타날문 토기들은 행군리토성에서 수습된 토기편들과 문양 및 태도 등이 거의 같다. 따라서 이 토기편들은 백제시대의 토기편들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행군리토성과 태봉산성의 수습 유물이 같다는 것은 두 성의 수축시기가 같다고 추정할 수 있다.



2:16 태봉산성 남벽 참호



2:17 태봉산성 동벽 회곽도

현재 김량장동과 원삼면의 좌항리는 고려시대이후 역참(驛站)이 있어서 하삼도(下三道)가운데 영남지방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원삼면지역은 삼국시대에도 삼국이 한강유역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툴 때에는 중요한 교통상 길목의 구실을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중요한 교통로를 지키고 거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성을 축조하고 주변 지역민의 입보(立保)를 위한 산성(山城)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삼국시대 무덤은 최근 고당리에서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간 도로공사 중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된 백제시대 토광묘가 있다. 이 두창리 유적에서는 17기의 백제의 토광묘가 발견되었으며 원저단경호(둥근바닥에 목이 짧은 항아리) 14점과 철모, 철도자와 철기, 구슬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5]

5) 용인시민신문2005. 9. 26일자

이 두창리 백제 유적은 북쪽에 미평리의 미륵뜰 평야 주변에 형성된 낮은 구릉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 부근에는 미륵뜰 평야의 농경을 바탕으로 한 취락이 백제시대 이미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후 통일신라의 석실묘와 조선시대의 토광묘가 발굴되어 상당히 오랫동안 취락이 형성되어 왔다.

원삼면 주변에 발견된 삼국시대 초기의 무덤으로 인근 마평동 석담의 돌무지 무덤, 운학동 여러 곳에 산재한 돌무지무덤들이 있다. 이들 돌무지무덤은 주변 인가(人家)및 오랜 세월로 인해 훼손이 많아 완벽한 원형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부여 계통으로 초기의 지배층의 무덤 양식은 같은 돌무지무덤으로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들 무덤의 형태를 보면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삼국 초기의 용인이 백제의

강역으로 추정하는 것을 보면 한강의 지류인 경안천을 따라 유입해온 3~4세기 백제 초기의 지배자의 무덤으로 보이지만 원삼면에서 발견된 무덤과 다른 형태로 보인다.

이 마평동과 운학동에서 고개를 넘으면 바로 원삼면이지만 무덤의 형태로 보아 두창리의 백제 고분을 만든 집단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지닌 것으로 보여진다. 마평동과 운학동의 무덤의 주인공이 경안천을 따라 이주한 집단이라 한다면 두창리 무덤의 주인공은 토착 세력이거나 남쪽에서 청미천을 따라 이주한 세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삼면 지역의 또 다른 삼국시대 유물 및 유적으로는 고당리 삼국시대 토기 산포지와 맹리 행군이 삼국시대 토기 산포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토기편 중에 한강유역 백제 토기의 주요한 기종인 장란형 토기의 동체부편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이 지역의 문화의 특징과 유입 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다.[6]

6) 최몽룡 외. 『용인시의 문화유적』. 서울대박물관. 1996. pp.35~41

통일신라시대 원삼면 지역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어느 사료에서도 보이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좌항리, 미평리 일대와 죽릉리 일대는 개산군의 영향 하에 있었으며 이 지역 토착 촌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삼면 지역에 취락이 형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 유적이 도처에 보이고 있는데 최근 두창리 도로공사 중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석실묘[7]와 사암리 모래실 토기 산포지에서 수습한 토기편과 목신리 신촌에서 수습한 토기편 그리고 좌항리의 토기 산포지에서 수습한 토기편에서 당시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8]

7) 용인시민신문. 2005년 9월 26일자. 2면

8) 최몽룡 외. 『용인시의 문화유적』. 서울대박물관. 1996. pp.35~41

통일 신라는 불교 국가답게 불교가 크게 융성하여 전국 각지에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이는 용인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찰의 건립 기원이 밝혀져 이시기에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원삼면에는 발견된 것은 없지만 인근 이동면 묵리의 용덕사가 건립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당시 불교 발달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불상들이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다. 원삼면 지역의 통일신라로 가늠할 수 있는 불상으로는 목신리 관음보살 입상과 석조여래 입상이 있으며 20 여년 전 학일리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이 있다. 이들 불상이 발견된 곳은 절터로 추정되며 이들 사원들은 당시 토착 지배세력과 연계되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융성하던 통일신라도 8세기말에 이르러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여 왕권이 크게 약화되고 중앙 귀족들이 분열되어 전국 여기저기에 호족(豪族)이라 불리

는 지방 세력이 나타나 중앙정부를 위협하여 극도로 혼란에 빠졌다. 이 호족들은 단순한 지방 세력이라기보다는 신라 말 변화의 주체 세력으로서 고려 초기 가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인데 용인 지역 근방에의 호족으로 문헌에 보이는 것은 죽주(竹州, 현 죽산)를 중심으로 세력을 떨친 기훤(箕萱)과 박적오(朴赤烏)가 있었고 광주에 왕규 등과 용인 지역에는 용인 이씨의 시조인 이길권(李吉卷) 세력이 있었다.[9] 그 중 원삼면 지역에는 기훤(箕萱)과 박적오(朴赤烏) 세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9) 「龍仁郡誌」 p67, 용인군지 편찬위원회, 1990

두창리 토광묘

- 소재지 : 두창리
- 시 대 : 삼국시대(백제), 통일신라시대



▶ 두창리와 백암면 근삼리 등지에서 백제시대 것으로 보이는 원저단경호와 철기, 통일신라 때 것으로 추정되는 광구병과 잔등의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중앙문화재연구원(원장 윤세영)이 2005년 4월 말부터 벌이고 있는 원삼면 고당리와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를 잇는 도로건설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원삼면 두창리와 백암면 근삼리 · 백봉리 등지에서 40여기의 백제시대와 조선시대 토광묘,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1기 등을 발견하였다.



2:18 두창리 백제 토광묘 발굴 현장

이 중 두창리 유적은 원래 밭으로 이용되던 곳인데 백제시대 토광묘 17기와 토광묘 안에서 원저단경호(둥근바닥에 목이 짧은 항아리) 14점과 철모, 철도자와 철기,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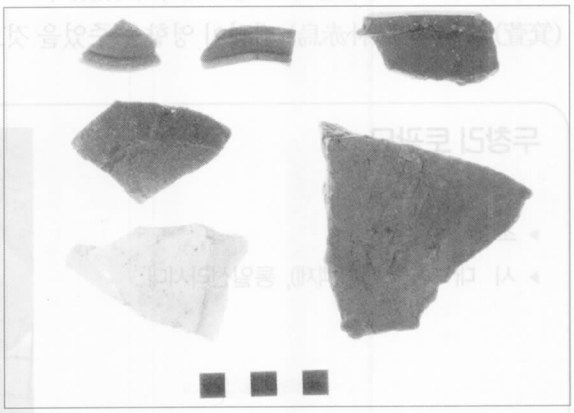
두창리 토광묘의 경우 중부지방 토광묘 성격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면서 "특히 두창리 고분 상부에 위치한 석곽분과 관계 규명을 통해 이 지역 묘제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용인시민신문 2005년 9월 29일자)

사암리 유물산포지

- 소재지 : 사암리 산 33-2일원
- 시 대 : 통일신라~조선
- 종 류 : 유물산포지



2 : 19 사암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암리 유물산포지 채집유물

좌항리에서 392번 지방도로를 타고 사암리 쪽으로 가다보면 사암교를 지나게 되는데 이 사암교를 건너기 직전에 북쪽으로 사암천을 따라 난 소규모 포장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북쪽의 해발 432m의 독조봉으로부터 흘러나온 가지능선 말단부 자락에 형성된 넓은 경작지가 나타난다. 유적은 이 경작 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도 이 유적 인근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산포지를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보고서 내용과 비교할 때 이 유적에서 채집한 유물들과 상당부분 유사하며 동일성격의 유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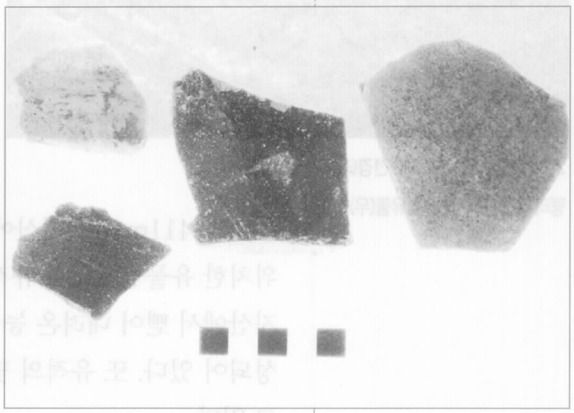
이번에 확인한 유적뿐 아니라 사암리의 독조봉 자락에 형성된 자그마한 구릉지들에는 전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유적이 다수 분포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향후 이 일대에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설공사가 이루어 질 경우 사전에 정밀한 문화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맹리 유물산포지1

▸소재지 : 맹리 400-1일원
▸시　대 : 삼국, 고려
▸종　류 : 유물산포지



2 : 20 맹리 유물산포지1 전경



맹리 유물산포지1 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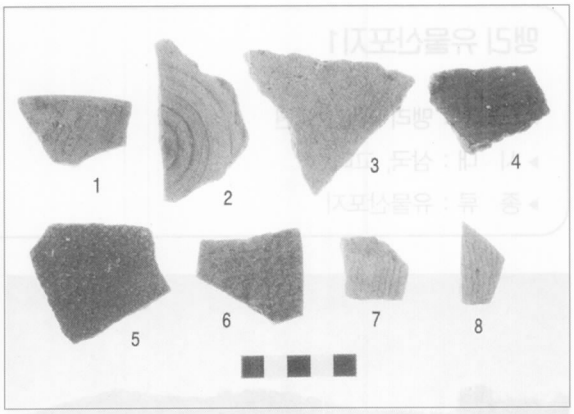
용인시와 음성간 17번 국도에서 맹리 행군이마을로 진입하여 동편으로 계속 진행하면 해발 411m의 건지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온 가지능선들이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다. 이중 맹골 입구의 능선 남사면상 경작지 일대에 유물산포지가 형성되어있다.

이곳에서 채집된 유물은 대부분 고려시대 도기편들로 당시의 생활유적의 잔존물들로 보여진다. 이외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 시문된 삼국시대 토기편도 보인다.

맹리 유물산포지2

▸소재지 : 맹리 75일원
▸시　대 : 삼국
▸종　류 : 유물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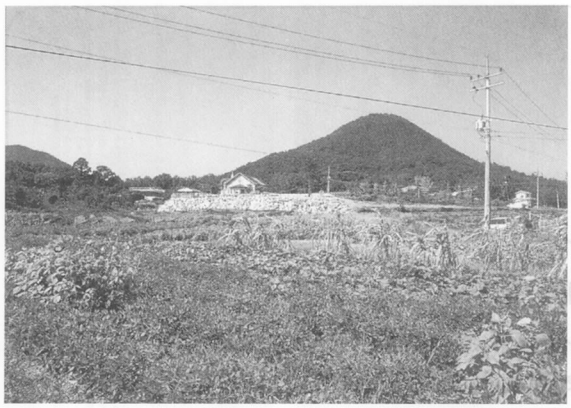
2:21 맹리 유물산포지2 전경(좌)
맹리 유물산포지2 채집유물(우)

해발 411m의 건지산에서 남동편으로 뻗어 내려온 능선의 말단부 자락에 위치한 유물산포지로 유적의 북쪽으로는 지산농원이 위치하여 동편으로는 건지산에서 뻗어 내려온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능선부를 따라 민묘군이 형성되어 있다. 또 유적의 맞은편에는 백제토성으로 알려진 태미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약간의 백제토기편이 채집되며 지산농원이 자리한 일대까지 유적이 분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산농원이 사유지인 관계로 확인하지 못했다. 채집된 유물과 입지로 보아 삼국시대 주거유적이 부존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에 유물이 채집된 능선 자락뿐 아니라 북쪽의 지산농원에까지 이르러 유적이 넓게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 일대에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정밀한 문화재 조사를 통해 유적 부존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맹리 유물산포지3

- 소재지 : 맹리 107일원
- 시　대 : 삼국
- 종　류 : 유물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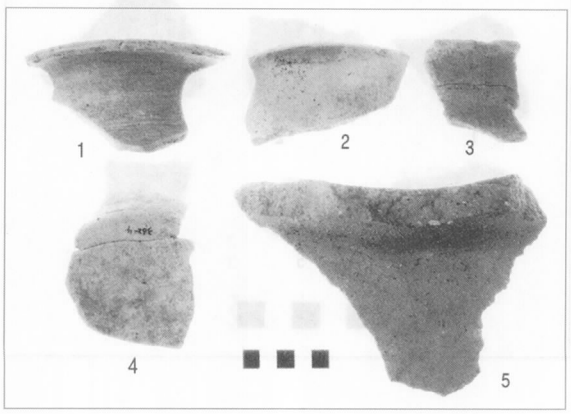


2 : 22 맹리 유물산포지3 전경(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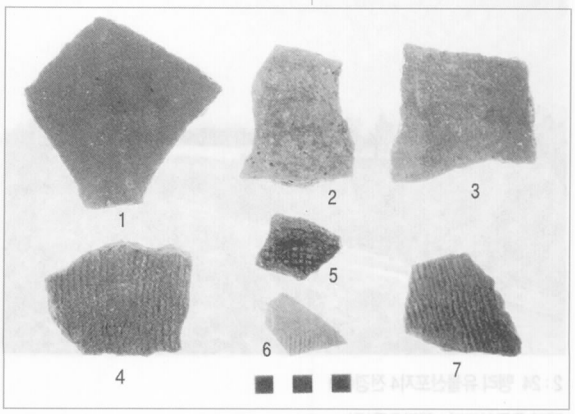
2 : 23 유물이 집중 출토된 전원주택부지(우)

맹리 태봉산에서 남쪽으로 흘러나온 능선부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태미산 남쪽에는 '산본원'이라는 묘목 농원이 있는데 이 농원입구에서 남쪽으로 펼쳐진 경작지 일대에 유물이 산포되어 있으며 특히, 농원 입구에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전원주택 동편의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사지 단면에는 다량의 백제토기편이 채집되었다. 이 대지는 아마도 다른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밭을 삭평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삭평된 대지 상면에 단단한 점토질의 토양이 노출되어 있어 주거지의 바닥면일 것으로 보이며 대지 조성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유적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채집된 유물은 대형 옹기류와 호 등의 편으로 유적 범위도 넓고 유물산포밀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향후 이 일대의 유적 보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농원 앞의 전원주택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차후 이 일대에서 다른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지속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맹리 유물산포지3 채집유물(좌)



맹리 유물산포지3 채집유물(우)

맹리 유물산포지4

- 소재지 : 맹리 148일원
- 시 대 : 삼국
- 종 류 : 유물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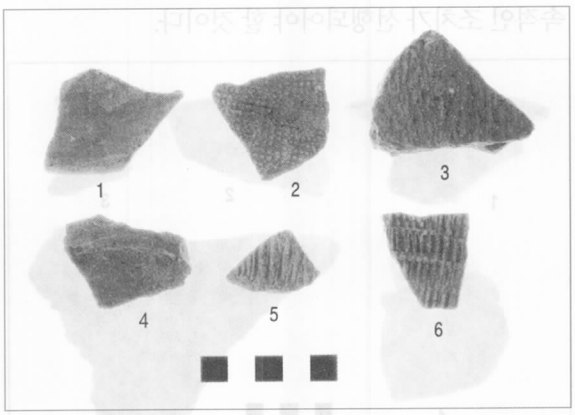
이 유적은 행군마을 일대의 경작지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백제토기 산포지로 보고된 곳으로 행군이토성이라고 알려진 장방형의 대지상면에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백제토성지로 알려진 태미산이 위치하며 동편에는 용인시와 충북 음성간 17번 국도가 남북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이 일대는 전반적으로 태미산에서 흘러나온 능선부가 편평하게 삭평되어 설상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대지의 남쪽편에는 토루처럼 돌출된 부분이 있어 토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전면적으로 백제토기편이 산포되어 있으며 채집된 유물의 양은 많지 않으나 범위는 현재의 행군이마을 전체적으로 유물범위를 형성할 만큼 넓은 편이다. 주변의 대지들을 토성 내부로 본다면 토성 내부에 위치한 주거유적군으로 볼 수 있으나 지표 상에 드러난 유물만 가지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여하간, 백제토기편이 산재한다는 점에서 당시 유적이 부존할 것은 명확한 만큼 향후 이 일대에서의 형질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정밀한 문화재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 24 맹리 유물산포지4 전경(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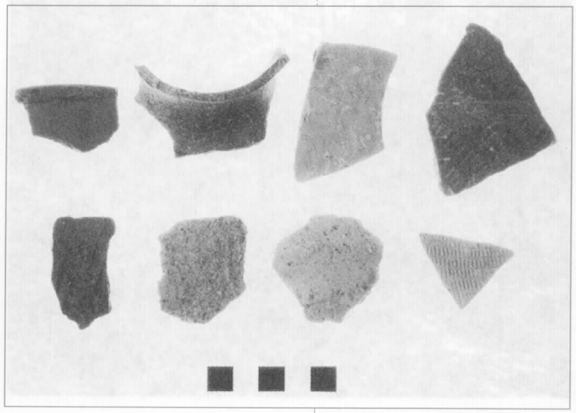


맹리 유물산포지4 채집유물(우)

두창리 유물산포지1

- 소재지 : 두창리 871-15일원
- 시 대 : 삼국
- 종 류 : 유물산포지





2 : 25 두창리 유물산포지1 전경(좌)
두창리 유물산포지1 채집유물(우)

두창리 북촌마을의 목원규 효자정문이 위치한 작은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뻗어 올라간 능선길을 따라 약 100m 가량 올라가면 능선부 일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소규모 경작지가 나타난다. 경작지 주변에는 민묘가 여러개 위치하며 민묘 하단부와 경작지 지표에서 약간의 백제토기편이 채집되고 있다.

현재 유물이 산포된 면적은 그다지 넓지 않으며 채집된 유물의 양도 많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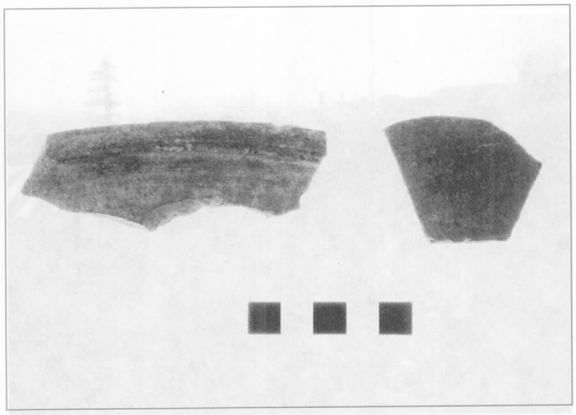
그러나 북쪽의 청미천 방향으로 뻗은 야트막한 능선부 일대 전체에 걸쳐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표에 유적의 흔적이 많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양호한 유적이 지하에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채집된 유물은 외면에 타날문이 시문된 회색경질토기편들이 대부분이며 약간의 황갈색 토기편도 포함되어 있다.

두창리 유물산포지2

- 소재지 : 두창리 98-1임 일원
- 시 대 : 통일신라
- 종 류 : 유물산포지





2 : 26 두창리 유물산포지2 전경(좌)
두창리 유물산포지2 채집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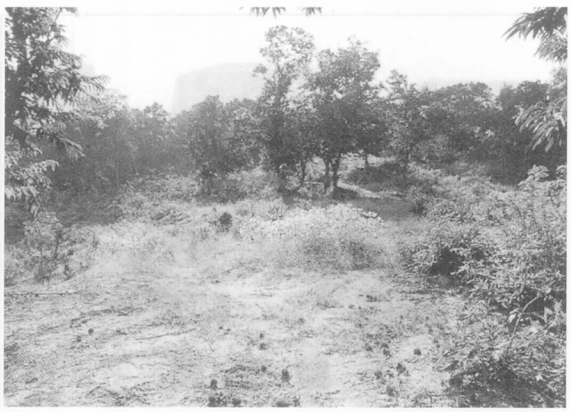
두창리 골안마을에서 서쪽에 위치한 해발 245m의 매봉재쪽으로 난 소로를 타고 올라가 산길로 접어들면 약간 오목한 계곡상의 대지가 나타난다. 이 계곡을 따라 난 산길 주변에서 한 점의 경질토기 구연부편을 채집하였다. 토기편이 채집된 주변지역은 관목과 소나무가 우거져있고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어 지표의 관찰이 쉽지 않은 지역이며 마을 주민들이 도굴꾼들이 자주 나타났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인근에 고분군 등이 부존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별다른 흔적이 파악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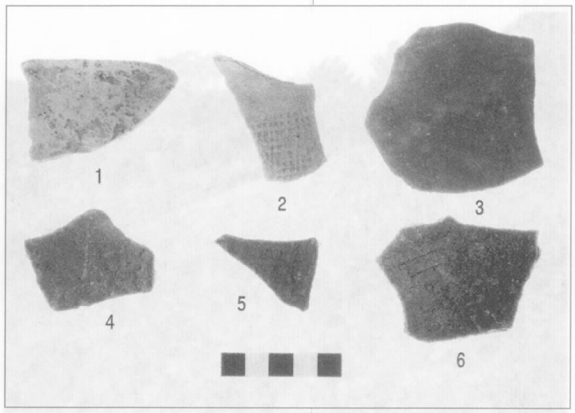
그러나 채집된 토기편과 입지를 통해 볼 때 통일신라시대 내지 고려시대 고분군의 부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창리 유물산포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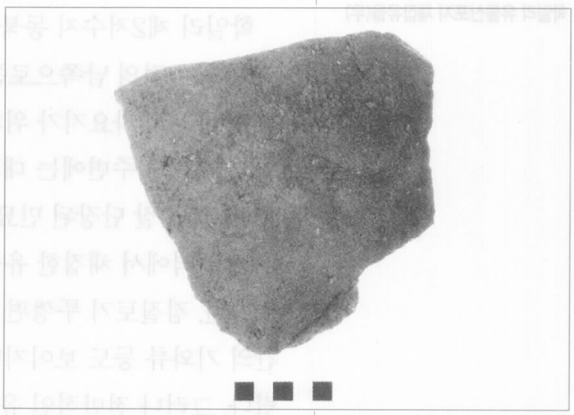
▸ 소재지 : 두창리 산22임 일원
▸ 시 대 : 삼국
▸ 종 류 : 유물산포지

2 : 27 두창리 유물산포지3 전경(좌)
두창리 유물산포지3 채집유물(우)





백암면에서 두창리로 넘어가는 304번 지방도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 남쪽의 구릉지 정상부에 성결교회가 보인다. 유적은 이 성결교회가 있는 능선부에 위치한다. 유적의 뒤편에는 해발 160m의 구릉성 야산이 솟아 있으며 이 야산에서 흘러나온 가지능선 중 약간 동편으로 빠져나온 작은 능선부 사면과 자락 일대의 경작지에서 다량의 백제토기편이 채집되었다. 주변에는 수 기의 민묘가 산재하며 구릉지의 하단부에는 민가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1동 있고 경사지를 이용한 과수원도 있다.



두창리 유물산포지3 채집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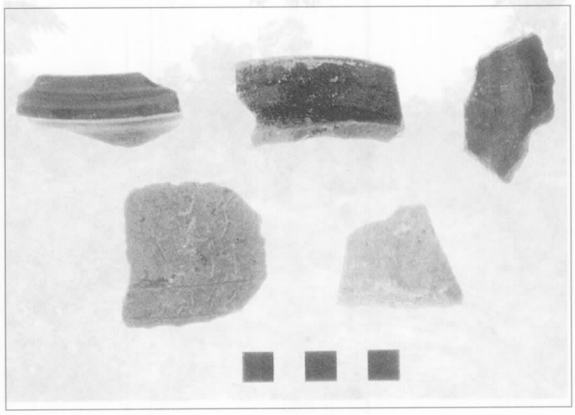
유물은 능선을 따라 놓인 민묘 주변과 제일 상위의 민묘 뒤편의 소나무 숲 언저리에서 집중적으로 채집되고 있다.

채집된 유물과 입지로 보아 백제 주거유적 혹은 분묘유적의 부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일리 유물산포지

- 소재지 : 학일리 532 일원
- 시 대 : 통일신라~고려
- 종 류 : 유물산포지





2 : 28 학일리 유물산포지 전경(좌)
학일리 유물산포지 채집유물(우)

학일리 제2저수지 동북편의 야산 동사면상 경작지 일대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이다. 유적의 남쪽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고 이 개울의 상류부 안쪽에는 학일리 백자요지가 위치한다. 산포지의 동편 자락은 저수지의 제방과 연결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대체로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로서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수 기의 잘 단장된 민묘가 있다.

이 지역에서 채집한 유물은 반구병 구연부편, 외면에 파상문이 시문된 경질토기편, 경질토기 뚜껑편 등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질 청자편 등이며 약간의 기와류 등도 보이지만 작은 파편들이어서 기와의 정확한 시기 판별이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인 유물 상태로 보면 나말여초에 해당하는 것들로 보여지며 당시의 건물지 등이 부존할 것으로 예견된다.

3. 고려시대

고려 건국후 점차 사회가 안정되면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점차 호족들이 그 지역의 향리직(鄕吏職)을 세습하며 지방 세력으로 그 지위를 유지해 가게 된다. 따라서 원삼면 지역도 이 호족의 후예(後裔)로서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향리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원삼면의 상당 부분이 속했던 죽산 지역의 향리직은 신라 말 호족이었던 박적오의 후손과 죽산 안씨의 시조인 안방준의 후예들이 호장(戶長)의 지위를 세습하며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이 지역의 지방관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원삼면과 관련된 기록은 매우 빈약하여 당시의 사정을 살피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단편적 기록과 주변 지역의 당시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원삼면 지역의 고려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조선시대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본래 수주(水州:현 수원)의 양량부곡(陽良部曲)이었다. 정종 원년(1399) 명칭을 현재의 것으로 하고 현으로 승격시켜 감무(監務)를 두었다. 태종(太宗) 13년(1413) 감무를 광주(廣州)의 추계향(秋溪鄕)으로 옮기고 죽주(竹州)의 고안(高安), 대곡(大谷), 목악(木岳), 제촌(蹄村) 4부곡(部曲)을 떼어 속하게 하였다."[10]

여기서 목악(木岳)은 현재 목신리 일대의 지명으로 원삼면의 일부 지역이 고려시대에는 부곡(部曲)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고안(高安)은 현재 백암면 지역이며 대곡과 제촌 역시 원삼과 인접한 지역이다. 따라서 옛 목악부곡 이외의 나머지 원삼면 지역의 성격 역시 짐작이 가는 것이다. 즉 죽주에 속했던 일부의 부곡을 떼어 양지현에 이속시켰다면 이보다 읍치(현재 안성시 죽산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나머지 죽산에 속했던 지역 역시 부곡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려사(高麗史)」를 보면 현재 원삼면에 붙어있는 인근지역들이 대부분 고려시대 부곡이라는 것이다.[11]

고려시대 원삼면 지역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불교 문화재와 분묘일 것이다. 용인 지역 내에도 이 당시 많은 절들이 지어 졌고 많은 불교 미술품들이 만들어졌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며 원삼면 지역에는 고려시대 지어져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사찰은 보이지 않지만 미평리 역

10) 「新增 東國與地勝覽」, 陽智縣 建置沿革條

11) 「高麗史」 卷56 志10 地理1 安城縣條
"공민왕 11년(1362) … 〈중략〉 … 그 공로로 하여 (안성을)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키고 수원 관하에 있던 양량(陽良), 감미탄(甘彌呑), 마전(馬田), 신곡(新谷) 4개의 부곡을 분할하여 이 현(縣:현 안성)의 소속으로 만들었다. 후에 김용(金鏞)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그 중 3개의 부곡을 도로 수원에 소속시켰다."
이것은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이 침입하여 개경이 함락시키고 양광도(楊廣道:현 경기도)지역 각 군현에 항복을 강요하였는데 안성현 사람이 투항을 가장하고 연회를 베풀어 그들을 대접하면서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적의 우두머리 6명을 죽어 더 이상 남진하지 못하게 한 공로로 안성 지역에 대한 포상을 내렸다는 것이며 양량(陽良)은 현재 안성시 고삼면지역이며, 마전(馬田)은 삼죽면, 신곡(新谷)은 보개면지역으로 보인다.

사여래상과 문수산 마애불이 남아 있어 당시 불교의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다. 미평리 약사여래불은 고려 초기 사찰의 조성과 함께 만들어진 석불로 보이는데 주변이 낮은 구릉지 형태이기 때문에 미평리에서 백암에 이르는 평야의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한 세력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삼면 지역과 같은 옛 죽산지역에는 칠장사라든가 봉업사와 같은 거대 사찰이 있어서 이들이 원삼면 지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본다. 따라서 고려는 분명 불교(佛敎)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찰이 지어졌으며 이 절들은 원삼면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계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사찰들은 고려와 조선의 격변기를 거치며 폐사되어 그 흔적조차 살필 수 없게 되었다.

원삼면을 중심으로 한 용인 지역에는 많은 고려시대 고분으로 추정되는 무덤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양지면 식금리 금박산에 고려시대의 무덤으로 보이는 돌방무덤이 발견되었으며 기흥구 상갈동 고려 고분, 마북동 고려 고분 등이 도굴되지 않고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상태로 발굴되었다. 원삼면지역 역시 좌항리에서 건물 신축 공사 중 발견되어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고려 고분이 있다. 이 고분의 매납 유물은 투박하고 실제 생활에 이용된 것이고 도자기의 경우 정교하지 않고 대량 생산된 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12] 이들 무덤 역시 중앙 귀족이라기보다 고분(古墳) 주변에 다소 세력을 가진 집단이 계속적으로 매장한 무덤으로 보인다. 좌항리는 고려시대 좌찬역이 있었던 곳이며 식금리는 고려초 양지의 옛 지명인 추계향이 자리잡았던 곳이며, 상갈리 고려 고분의 경우에는 이 근처에 용흥역이 있었으며 마북리는 고려시대부터 용구현의 읍치(邑治)가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원삼면 좌항리 고분을 비롯한 용인 지역의 고려 고분들은 그 주변에 뿌리를 둔 토착적 세력이 그 주인공이 아닌가 짐작된다.

고려시대 교통은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고려시대는 22개의 역도(驛道)와 525개의 역이 있었는데 현재 용인(龍仁) 지역을 통과한 역도로는 경기 광주의 덕풍역(德豊驛)을 중심으로 한 역도(驛道)인 광주도(廣州道)로서 관할범위는 한양~광주~이천(利川)~음죽(陰竹)~충주로 이어지는 역로(驛路)와 한양~양재(良才)~괴산(槐山)~연풍(延豊) 등으로 이어지는 역로가 속하였다. 여기에 소속된 역은 광주의 덕풍 · 경안(慶安) · 장가(長嘉) · 안업(安業) · 남산역, 과천(果川)의 양재역, 용인의 금령역(金嶺驛), 죽산의 좌찬(佐贊) · 분행역(分行驛), 이천의 오행(五行) · 안리(安利), 음죽의 무극(無極),

12) 주도인물 · 참여세력 · 활동지역 등을 살펴볼 때 정주원 의병부대는 전형적인 용인지역 의병이었다고 하겠다(『용인군지』, 109~110쪽).

충주의 요안(遙安) · 단월(丹月), 연풍의 안부(安富) 등 15개이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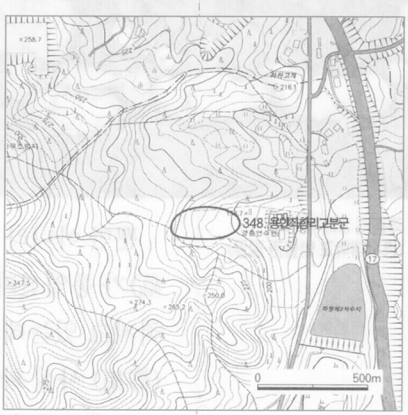
고려의 역도(驛道) 중 하나인 광주도(廣州道)에서 현재 용인지역을 통과한 구간은 현재 성남에서 금령역(현 김량장동)을 거쳐 양지면을 통과하여 좌찬역(현 원삼면 좌항리)을 지나 죽산을 거쳐 진천으로 빠져나가는데 현재로 추정하면 조선의 역로와 거의 유사하게 수지구 풍덕천동을 거쳐 기흥구 마북동을 지나며 기흥구 신갈동에서 다시 어정동를 지나 처인구 김량장동과 양지면을 지나 현 17번 국도를 따라 좌전 고개를 넘어 원삼면지역을 관통하고 죽산지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용인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한강 주변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았기에 많은 산성이 축조되었는데 고려에 이르러는 남부지방에서 중앙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요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어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13) 高麗史 卷82 志36 兵2 站役條

좌항리 고분군 (佐恒里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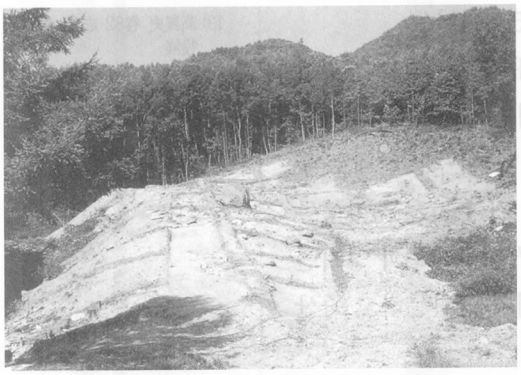
- 위 치 : 좌항리 산30-1번지
- 시 대 : 고려시대 10~11세기
- 규 모 : 1,500평
- 분묘수 : 석곽묘 13기, 토광묘 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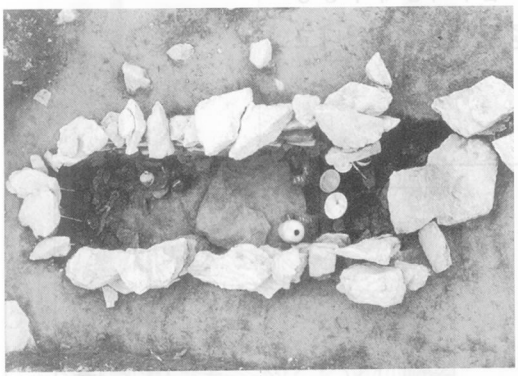
〈지도2-5〉 좌항리 고분군 위치도 ▶

좌항리에 위치한 고려시대 고분군 발굴 지역은 한국경영자 총협의회에서 연수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를 실시하고 이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검토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 포함층 여부에 대한 지표조사를 선행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1993년 12월 경총에서 명지대학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훼손 지역대상 범위 내에 유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도굴된 석곽묘가 노출된 것이 발견되어 문화체육부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아 1994년 5월 18일부터 동년 9월 2일까지 발굴 사업을 착



2:29 좌항리 고분군 전경(발굴조사 당시)



2:30 좌항리 3호 석곽묘
(명지대학교 박물관 발굴)

수하게 되었다.

명지대학교 박물관장 신천식 교수의 지휘로 실시된 발굴지역은 해발 194m의 좌전고개에서 남쪽 산릉으로 약 300m지점에 위치하는데 지형상 비교적 경사가 급한 구릉지대로 향은 동쪽이기는 하나 처음에는 유적의 부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되었고 유규의 빈도수가 매우 낮아 큰 기대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발굴 중반부터 제2 그리드에서 석곽묘가 들어나기 시작하였고 주거지의 온돌 구조로 보이는 활석이 노출되었으나 이것은 바닥층까지 노출 시키고 난 후에야 이 유규는 숯을 굽던 가마터였음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출토된 유물 자료로 보아 이 분묘군(墳墓群)은 10세기 후반부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출토 유물은 주로 토기와 청자 백자, 녹청자, 철제 가위, 청동수저와 동곳, 백자병, 백자대첩 등으로 각 유구간의 시대 폭은 별로 크지 않으며 대략 11세기 말까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출토된 고려 백자는 이동면 서리 고려백자와 비교 연구될 수 있는 자료로서 매우 귀중하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백제나 가야, 신라시대의 묘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석곽묘(石槨墓)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근래에 들어 밝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좌항리 고려시대 석곽 분묘의 군집(群集) 사실 확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토광묘와 수혈식 석곽묘가 혼재 하고는 있으나 이곳은 석곽묘가 주 묘제이고 또한 석곽묘나 토광묘 모두 목관사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석곽묘에는 일부 횡구의 기법이 잔존하고 있으나 이 유적지는 고대 석곽묘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려초기의 분묘 유적으로 동일 집단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인시민신문 2005. 9. 29 백제분묘 발굴)

4. 조선시대

조선 건국 초기제도의 개혁은 경기도와 용인지역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고려 말 이성계 등은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으로 정치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1390년(공양왕 2) 개경 주변의 경기(京畿)[14]를 좌·우도로 분리 승격시키고 새로 양광도·교주도·서해도의 31현을 편입시켜 좌도 25현, 우도 19현 등 총 44현으로 늘렸으며, 각각 도관찰출척사(道觀察黜陟使, 세종12년 관찰사(觀察使)로 바꿈)를 설치하여 일반 행정을 관장하게 하였다.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다음 해인 1395년(태조 4)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의 행정구역을 다시 정하여, 수안·곡주·연안 등은 서해도에 속하게 하고 광주·수원·여주 등은 경기에 합치되 고려와 같이 좌·우도를 두었다.

1413(태종13) 사방의 거리를 참작하여 군현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다음해인 태종 14년(1414)에는 종래의 경기 좌우도를 합쳐 경기라고 하였으며, 대대적인 군현의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원삼면(遠三面)의 대부분이 속했던 죽주(竹州)는 1413년(태종 13) 군현(郡縣) 명칭에 있어서 도호(都護) 이하는 '산(山)', '천(川)' 자로 '주(州)'자를 대신하게 한다는 원칙에 의해 죽산현(竹山縣)[15]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감(縣監)을 두었으며 현재 목신리와 학일리 지역인 목악면을 떼어 양지현에 넘겨주었다.[16] 1434년(世宗 16)에는 충청도(忠淸道) 소관에서 경기도(京畿道)로 이속시켰다. 1543년(中宗 38)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하였다. 그 후 1584년(宣祖 17) 현(縣)으로 읍호(邑號)가 강호(降號)되었다가 1596년(宣祖 29) 도호부(都護府)로 복호(復號)되었으며 1635년(仁祖 13)에는 여주(麗州) 토포사(討捕使)를 죽산부로 이설하고 수영후영(守禦後營)을 설치하여 부사가 여주진관의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를 겸임하여 여주(麗州)를 비롯한 6개 읍을 통괄하였다. 이것은 당시 이곳이 목천(木川)·음성·진천의 남쪽지방과 양지·용인의 북쪽지방을 연결하는 차령산맥 이북의 군사·교통 요지였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부곡(部曲)이었던 원삼면 지역은 조선이 건국하며 부곡제가 소멸되고 일반 군현제(郡縣制) 지역으로 상승되면서 죽산현에 속한 면단위로 재편되었다. 현재 원삼면에 속한 지역은 죽산현 원일면, 원삼면, 목악면이었으

14) 京畿라는 말은 宋代에 유래하는바 皇帝가 머무르는 京과 皇都의 旁邑을 일컫는 畿縣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15) 『東國輿地誌』 竹山縣 建置沿革條

16)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畿 水原都護府 陽智縣를 보면 "본래 수주(水州)에 속한 양량촌 부곡(陽良村部曲)인데, 본조(本朝) 공정왕(恭靖王) 원년 기묘(己卯)에 양지현으로 고쳐서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고, 태종(太宗) 13년 계사(癸巳)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쳐서, 현치(縣治)를 광주(廣州)의 임내(任內) 추계향(秋溪鄕)으로 옮기었는데, 땅이 좁으므로, 광주의 임내(任內) 고안(高安)·대곡(大谷)·목악(木岳)·제촌(蹄村)의 4부곡(部曲)을 떼어서 이에 붙였다."되어있다.

나 목악면은 따로 떼어 양지현에 이속시켰다.

죽산현은 그 치소(治所)를 조선 초기부터 1914년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이 재편될 때 까지 현 안성시 죽산면에 두었다. 현은 그 크기에 따라 종5품의 현령(縣令)과 종6품의 현감(縣監)으로 나뉘어 파견하였으며 조선은 고려와 달리 대체로 모든 행정구역에 지방관을 보내 다스렸다. 조선 초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의 기록을 보면 죽산현은 종6품 현감(縣監)과 훈도(訓導) 각 1명씩 파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당시 죽산현은 규모가 작은 소현에 분류된다.[17]

17) 新增東國輿地勝覽 竹山縣 官員條

그러나 영조(英祖) 연간에 편찬된 「竹山府邑誌」 관직(官職) 조를 보면 "부사(府使)는 정3품이며 2년간 수어토벌사(守禦討伐使) 후영장(後營將)을 겸임하며 중군(中軍) 1명과 파총(把摠) 1명이 있다" 고 하였다. 한편 향촌 재지양반들이 지방관을 보좌하는 향소(鄕所 또는 향청(鄕廳)이 있어 우두머리인 좌수(座首) 1인, 별감(別監) 2인이 있었으며 그 외 관직으로 아전(衙前) 26인 통인 5인, 사령(司令) 9명, 관노(官奴) 5명 관비(官婢) 2명이 있었다고 되어있다. 이때는 죽산이 현에서 도호부로 승격되고 조선 후기에는 지리적으로 군사적 기능의 중요성이 강화되어 부사를 무관직으로 보임하며 이를 보좌하는 무반 관직이 신설되거나 증가되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실질적 책임자는 흔히 사또라 불리는 수령(首領(부(府)의 부윤(府尹)에서 현(縣)의 현감(縣監)까지의 지방관)으로 그들은 그 지방의 행정, 군사, 조세 징수 및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상피제[18]라는 제도가 있어 그 지역 출신자는 임용될 수 없었다.

18) 상피(相避)제는 그 지역 출신자 뿐 아니라 감영(監營)의 監司와의 관계도 감안된다.
陽智郡 邑誌(光武3년(1899)) 邑先生을 보면 李明鎭이란 사람 숙종 15년(1689) 양지현감으로 도임하여 그 이듬해인 숙종 16년(1690) 감사와 상피로 사임한 내용이 있다.

또 수령은 임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 생소하기 때문에 행정 사무는 자연 그 지역 토착인 향리(鄕吏)가 거의 전담하였는데 이들은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방(房)을 설치 수령을 도와 징세(徵稅)와 군역(軍役)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중 호방(戶房)은 수령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향리는 국가로부터 직무에 대한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그 작폐가 심해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향청(鄕廳)과 경주인 제도를 설치하였다.

향청은 향촌 양반들이 수령을 보좌하며 향리를 감찰하는 기관으로 좌수(座首)를 우두머리로 하여 2-5명을 두는데 이들은 조선 중기 향청의 기능을 뒷

받침하는 지방의 자치 규약으로 향약(鄕約)이 보급되며 향약을 관장하며 유교적인 향촌 질서를 바로잡기도 하였지만 너무 양반 위주의 향약 운영은 농민을 비롯한 일반 백성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원삼면 지역에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면(面)과 리(里)를 두고 그 지역사람으로 책임자를 임명하여 수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맡겼다. 면의 책임자를 풍헌(風憲) 면임(面任), 권농(勸農)으로 불리었으며 그들은 면내의 정령을 수행하고 면내의 풍속 교화 및 범죄를 조사하여 관에 보고하는 일을 하였으며 농업의 생산을 독려하며 면내의 농작물의 작황을 관에 보고하며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역시 관에 보고하는 일을 맡았다. 16세기 후반 이후 조선에 향약(鄕約)이 보급되면서 그 책임자를 집강(執綱), 약정(約正)이란 명칭으로 불리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양반들이서 향촌 내에서 그 세력이 막강하였다. 또 면 아래의 동(洞)과 리(里)의 책임자는 동장(洞長), 리정(里正)으로 불렀는데 모든 면에 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원삼면 지역은 당시에는 모두 3개면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죽산현에 해당하는 것은 원일면(遠一面)과 원삼면(遠三面)이 있었으며 양지현에는 목악면(木岳面)이 해당된다.

죽산현 원일면(遠一面) – 관문(官門) 북 50리 , 맹동, 좌찬역촌, 내동,

죽산현 원삼면(遠三面) – 관문(官門) 북 40리 , 승죽동, 유동, 가좌동, 분촌

양지현 목악면(木岳面) – 관문(官門) 동남 30리, 학일리. 목악리, 구봉리, 신기리

이후 죽산부와 양지현은 1895년(고종 32) 4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각각 죽산군과 양지군(陽智郡)으로 승격되고 전국을 23부제(府制)로 나누면서 충주부(忠州府)에 소속되었다가 1896(고종33) 13도제의 시행으로 다시 경기도(京畿道)에 소속되었다.

조선시대 원삼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조선 후기 죽산지역의 농업의 상황을 보면 1832년(순조 32)에 편찬된 「죽산읍지(竹山邑誌)」에 한전(旱田)이 1,070결이고 수전(水田)이 1,195결이라 하여 밭농사보다 벼농사가 약간 많았는데 이는 원삼면 지역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관청이나 여러 국가 기관 및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를 제외한 실제 세금을 징수하는 토지는 한전(旱田)이 698결이고 수전(水田)이 898결이며 이 중 상당수가 양반지주의 땅이라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농민은 자영농보다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매우

컸다. 따라서 당시 농민은 소작료로 수확량의 절반 정도 바치고 그 외 군역(軍役), 공납(貢納)을 대신한 대동미(大同米), 환곡미(還穀米)를 위한 세금 그 외 수많은 세금을 부담하였고 지방관은 여러 가지 특별세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징수하였기 때문에 농민은 실제 생산량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바치는 경우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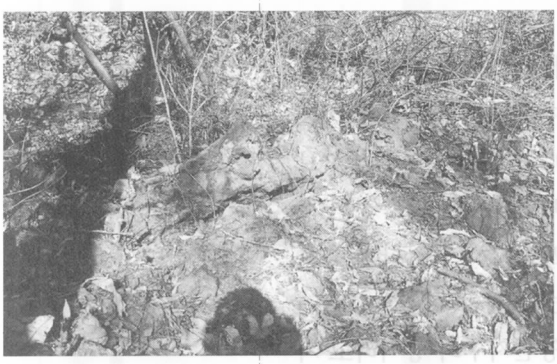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 들어와 농민들은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이앙법(移秧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앙법을 조선 초 남부지방 일부에 보급되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보급되어갔다. 그러나 이앙법은 모내기 할 때 가뭄이 들면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지하였지만 농민들은 저수지를 축조하여 모내기철의 가뭄을 해결하려하였다. 따라서 원삼면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벼농사를 위한 저수지가 만들어 졌는데 당시 원일면의 전지현 제언(堤堰)과 원삼면의 가좌동 제언(堤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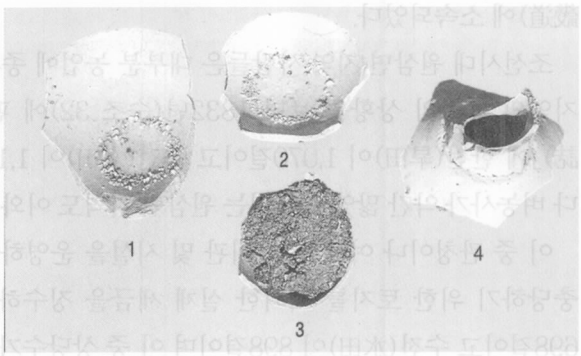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 가면 원삼면 지역에서도 농업 이외 수공업에 의한 생산시설이 생겨났는데 원삼면에 옹기점(甕器店)과 원일면에 수철점(水鐵店)이 있었다.[19]

19) 竹山府邑誌, 土産條, 1842

문촌리(文村里) 1호 요지

- 소재지 : 문촌리 산 25번지 일대
- 시 대 : 19세기
- 성 격 : 백자요지





2:31 문촌리 요지 전경(좌)
문촌리 여지 채집 유물(우)

문촌리 1호 요지는 문촌리의 마을을 가로지르는 포장도로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나지막한 임야지역의 버섯농장 안쪽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35-1임, 383-1전, 384-2전, 384-3전 일대에 해당한다.

주변이 빽빽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유적의 우측은 단애면을 형성하며 비교적 폭이 넓은 개울과 접해 있다. 백자 파편들이 버섯농장뿐만 아니라 유적의 아래쪽에 있는 초류를 사육하는 곳까지 넓게 퍼져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20미터, 세로 30 미터 정도이지만, 가마의 구조물이 지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지표에서 확인되는 가마의 크기는 대략 봉통 쪽의 폭이 1.4 미터이고 굴뚝 쪽이 3 미터에 달하며 길이는 13 미터 정도이다. 또한 가마내부의 칸막이가 양호하게 남아있으며, 주변의 현상이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가마터에서는 다수의 백자가 수습되었는데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 외에도 잔, 굽이 높고 각이 진 제기의 파편 등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굽은 안 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었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 하였다.

문촌리(文村里) 2호 요지

- 소재지 : 문촌리 산 50번지 일대
- 시 대 : 20세기
- 성 격 : 옹기요지

문촌리(文村里) 2호 요지는 문촌리의 도로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박찬헌 옹의 자택(454-4번지) 우측 편에 조성된 묘지 주변에 위치한다.

이 것은 20세기 초에 천주교도들에 의해 옹기가 제작되던 유적으로 현재는 묘지 조성과 밭으로 개간되어 형질이 크게 변경되어, 유적의 규모나 특징을 확인할 수 없다. 가마터 주변에서 채집되는 파편들은 대부분 항아리의 잔편들로, 짙은 밤색을 띠고 있다.

학일리(學日里) 1호 요지

- 소재지 : 학일리 산 55번지 일대
- 시 대 : 19세기
- 성 격 : 백자요지



2:32 학일리 요지1 전경



학일리 요지1 채집유물

학일리 1호 요지는 고초골 저수지를 통과하여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포장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약 150여 미터 떨어진 윤창희씨댁(76-2번지)과 이종철씨 댁(52번지)의 주변 밭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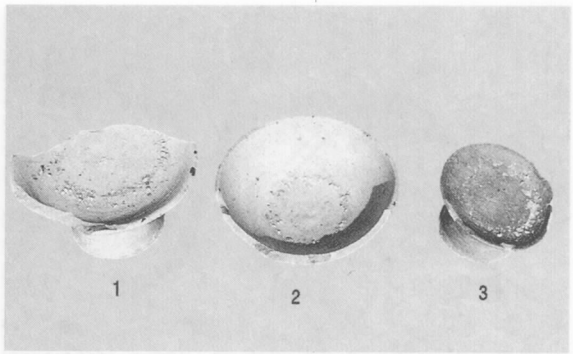
유적이 택지와 밭으로 개간되어 훼손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종철씨 댁 주변에는 가마벽의 파편이 다수 산재해 있고, 윤창희씨 댁과 사이에 있는 밭에서는 다수의 백자파편이 흩어져 있다. 파편의 분포범위는 가로 30미터, 세로 30여 미터 정도이다.

유적지 주변에서는 다수의 백자와 도침, 가마벽 등이 수습되었다. 백자류는 대접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접시와 작은 병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과 회청색이 대부분이며,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었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학일리(學日里) 2호 요지

- 소재지 : 학일리 532번지 일대
- 시　대 : 19세기
- 성　격 : 백자요지





2 : 33 학일리 요지2 전경(좌)
학일리 요지2 채집유(우)

학일리 2호 요지는 고리안골에 위치한 쌍용저수지 제방 동측 끝 편에서 냇가를 따라 임야 쪽으로 250여 미터 정도 올라간 지점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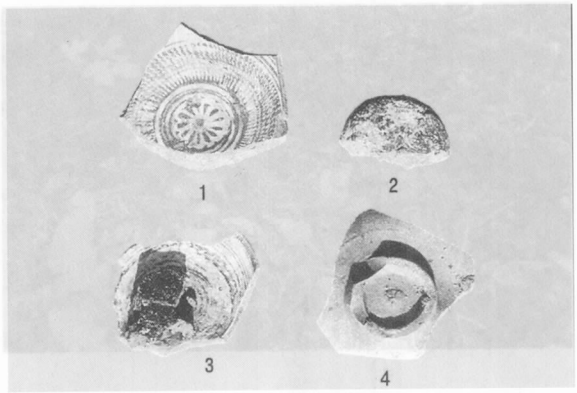
가마터 유적은 경사가 완만한 작은 구릉에 위치하지만, 아래쪽은 급경사를 이룬 비탈진 사면을 따라 냇가로 이어진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25미터, 세로 25 미터 정도로 아래쪽에 파편퇴적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 지표에는 가마의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가마는 가로 1.7-3.0 미터이며, 세로 15미터 정도의 크기로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가마의 위쪽에는 불탄 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굴뚝부분의 축조 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곳에는 보호유적이라는 내용의 경고판이 세워져 있다.

다수의 백자와 도침, 가마벽 등이 수습되었다. 백자류는 대접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접시와 굽이 높은 제기 등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굽은 안 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었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학일리(學日里) 3호 요지

- 소재지 : 학일리 산 37-1번지 일대
- 시 대 : 15세기
- 성 격 : 분청사기요지





2 : 34 학일리 요지3 전경(좌)
학일리 요지3 채집유물(우)

학일리 3호 요지는 쌍용저수지 남측 끝 편에서 서측 임야쪽으로 150 미터 떨어져 있고, 19세기 백자가마에서 남측으로 약 2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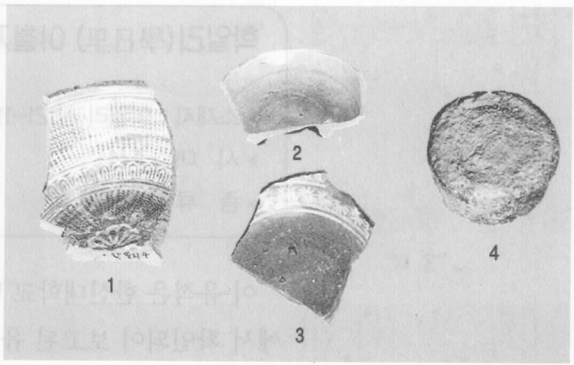
가마터는 임야중간을 가로지르는 소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미터 폭의 소로공사로 인하여 유적이 많이 파괴된 상태이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15미터, 세로 15미터 정도로 소로와 임야의 단애면에 퇴적이 노출되어 있으며, 소로 주변에 파편이 흩어져 있다.

유물로는 분청사기와 청자, 요도구가 수습되었는데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 외에도 병의 저부가 수습되었다. 유색은 대부분 암록색이며, 바닥에는 태토비짐 혹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학일리(學日里) 4호 요지

- 소재지 : 학일리 산 37-1번지 일대
- 시 대 : 15세기
- 성 격 : 분청사기요지





2:35 학일리 요지4 전경(좌)
학일리 요지4 채집유물(우)

학일리 4호 요지는 쌍용저수지의 남측 끝 편에서 좌측의 대각선으로 400여 미터 떨어진 임야 지역으로 3호 요지에서 남측으로 약 50 미터 떨어진 구릉에 위치한다.

유적지는 임야지역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유적의 범위는 가로 20 미터, 세로 20 미터 정도로 보인다. 지표에는 소량의 분청사기 편만이 노출되고 있을 뿐이나 구릉사면의 양상으로 보아 위쪽의 토사가 내려와 퇴적을 덮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된 유물을 보면 분청사기와 청자, 요도구, 가마벽편 등이고 특이하게도 포개구이를 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사암리(沙岩里) 1호 요지

- 소재지 : 사암리 산 37-1번지 일대
- 시 대 : 20세기
- 성 격 : 옹기요지

사암리(沙岩里) 1호 요지는 사암리 용암마을 북쪽에 있으며 점말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점터, 즉 옹기를 굽던 가마가 있는 마을 이라는 뜻이다.

학일리(學日里) 야철지

- 소재지 : 학일리 산121-11임 일원
- 시 대 : 조선
- 종 류 : 야철지

이 유적은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용인시 일원의 도요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보고된 유적으로 고초골 저수지에서 남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나타나는 개울의 서편 산사면 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철재와 노벽편이 투텁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형변화가 심하고 녹음이 우거져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적의 위치가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고 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만한 지역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유적이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보고자에 의하면 이 야철지는 철을 1차 제련하였던 장소로 추정되며 인근에서 철광석 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개울의 사철을 제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유적 훼손의 위험은 적으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안내판을 세우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2 : 36 학일리 야철지 전경(좌)
학일리 야철지 채집 슬래그편(우)

원삼면 지역은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에서 남부지방 특히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가기 위한 구관도(舊官道)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교통로(交通路)인 9대로 가운데 제4로(한양 – 부산)와 제5로(한양 – 통영)가 지나가던 곳이었다.

제4로는 한성(漢城)에서 남동쪽으로 숭례문에서 한강진(漢江津), 판교를 거쳐 용인의 구흥, 금령, 좌찬(현 원삼면 좌항리)을 거쳐 죽산, 충주, 경상도 문경, 대구를 경유하여 경상도 부산진에 이르는 도로이다. 서울~부산 간을 연결하는 최단코스로 조선조의 양대 내륙수로였던 낙동강과 한강의 강창(江倉)을 연결시켜 주면서 이 수로와 평행하여 도로가 발달한 특징이 있다. 이 도로는 내륙에 위치하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안전하였고, 최대 농업생산지역을 지나는 도로로, 정치 · 군사 · 경제적인 중요성을 지닌 도로였으며 총 연장은 960리이고 주요 지선은 29개이다.

제5로는 한성에서 남으로 제4로와 같이 한강진, 문경, 상주, 함안을 경유하여 경상도 고성현 통제사영에 이르는 도로로 서울에서 유곡역(문경)까지는 제4로와 같은 길이며 유곡역에서 분기하여 남쪽으로 향해 뻗어있는 도로이다. 제5로는 제4로 중 유곡역(문경)에서 분기하였으며, 분기한 곳에서 통영까지는 530리이고 주요 지선(支線)은 8개이다.

이렇듯 원삼면 지역은 북서 방향으로는 금령 구흥 판교, 거쳐 한양까지 100리, 남으로는 죽산까지 50리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고 이 도로는 현재에도 중요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9대로 중 제4 · 5로는 원삼면지역에 있었던 좌찬역을 기준으로 북서방향인 한양에서 한양진, 양재, 신원, 낙생역을 지나 구흥, 금령역에 연결되었고 남남동쪽으로 분행역을 거쳐 죽산을 경유 문경의 유곡역을 거쳐 4로와 5로가 갈라져 각각 부산과 통영에 닿았다.

좌찬역은 중급 정도의 역으로 양재도(良才道) 찰방(察訪)에 소속되었으며 말 6필과 역노(驛奴)비 9명이 배속[20]되어 여행객의 신분과 직책에 따라 말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역무는 역장(驛長), 역리(驛吏), 역졸(驛卒), 역정(驛丁), 일수(日守), 노비(奴婢), 솔인(率人) 등에 의해 관장되고 이들의 급료와 역을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제반 경비는 각 역에 지급된 토지로 충당되었다. 좌찬역에 지급된 토지는 대략 관둔전(官屯田) 12결, 공수전(公須田) 20결, 마위전(馬位田) 50부, 신역(身役)의 댓가인 유역인전(有役人田)으로 마전(馬田) 2결, 부장전(副長田) 1결 5부, 급주전(急走田) 50부가 배정된 것으로

20) 竹山邑誌, 驛院條. 1832

추정할 수 있다.[21] 19세기 후반 좌찬역의 운영 경비를 보면 도조(賭租) 256석 16두 7승 5홉의 지원이 있었다.[22]

역민의 집단 거주지를 역말[驛村]이라 불리며 신량역천(身良役賤)의 특수 신분층으로 구성된 촌락공동체로 신분상승에 엄격한 제약이 가해진 구속적 사회라 할 수 있다. 18세기의 이 좌찬역촌의 규모를 보면 편호(編戶) 167, 남성 364명, 여성 441명의 총인구 805명으로 구성된 중규모 촌락이었다.

역로는 단순히 사람의 통로뿐 아니라 물자의 수송에도 이용되어 인구가 많은 곳에는 장시(場市)가 세워져 농촌에서 물자 거래 및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원삼면 지역 주변에는 구성의 읍내장, 금령역 주변의 금령장, 백암의 백암장 등은 구관도 주변에서 번성하였다.

역로 및 큰길 주변에는 주막이 들어서서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조선후기 원삼면 지역의 주막을 보면 가좌리 장등주막, 창동리 외창주막, 좌찬리 좌찬주막, 좌찬리 용암 주막, 행군리 태평촌 주막, 문촌리 미륵당 주막 등이 있었다.

원삼면 지역은 옛부터 지방에서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의 왕래가 많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방관은 이들을 접대하다보니 해당 주민을 위해 힘쓸 수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다.[23] 따라서 원임이 된 사람은 대개가 자기의 직책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으며 고과에도 불량한 점수가 계속 나타나 좌천되거나 파직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원삼면지역이 속했던 죽산과 양지는 한양(漢陽)과 남부 지방 특히 경상도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라서 유동인구가 많고 대소 벼슬아치들의 왕래가 심하여 이에 대한 접대비를 이 지역 사람이 낸 세금 가운데서 충당되었기 때문에 부담은 점점 증가되었다.

원삼면 지역의 교통의 발달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침공로로 이용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다. 1592년 4월 14일 부산포에 상륙하여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은 동로(東路), 중로(中路), 서로(西路)로 나누어 북상하며 우리 국토를 유린하였는데 그 중 중로를 택한 「가또오 기요마사」와 「나베시마 나오시게」 등은 음성, 죽산, 양지를 지나서 동년 5월 1일 용인을 경유 2일 한강에 진출했으며 서로의 「구로다 나까마사」 역시 5월 5일 청안, 진천, 죽산, 양지, 용인을 거쳐 도성에 이른 다음 총수(總帥) 「우끼다 히테이에」 등은 그 뒤를 따라 입성하였다. 이렇게 왜군 주력 부대 중 중로와 서로 2진이 모두 죽산 양지와 용인을 경유하는데 「난중잡록(亂中雜錄)」의 기록을 보면 "경기 지역에 적들이 가

21) 世宗實錄 2년 11월 5일 己巳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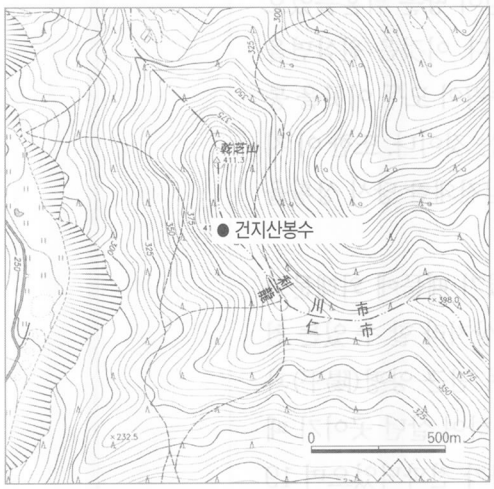
22) 竹山郡都邑誌, 驛賭條 左贊驛

23) 김안국(金安國)이 쓴 양지현중수동헌비(陽智縣重修東軒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양지(陽智)는 작은 고을이다. 경기(京畿) 안에 있어 공물(供物)이 많고 부역(負役)의 번거로움이 다른 도에 비해 배나 된다. 땅이 좁고 사람이 적으며 아전과 노비들은 보잘것없어 고을의 명목은 지킨다고 하나 지탱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있다. 경상(慶尙) 충청(忠淸) 두 도를 왕래하는 요충지로 공사간의 여객(旅客)들이 모이는 곳이며 해물이나 내륙 물자를 수송하는 요지이고 이웃나라 일본 사신들의 예물이 모두 집합되어 수송됨에 여가가 없고 그들을 접대함에 다른 일(주민을 돌보는 일)에는 돌아볼 여유가 없다.

득히 들어와 한강 이남은 화염으로 하늘이 자욱하고 포성이 땅을 뒤흔들었으니 용인 광주 수원 등지는 깡그리 불타 버렸다." 고 하였다. 이것은 원삼면을 포함한 용인 지역이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이었고 적의 주력이 모두 이곳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그 피해 역시 극심한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행군리 토성과 태평촌이란 지명에 얽힌 설화에서 임진왜란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원삼면 지역은 한양과 영남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외래문화의 유입도 빨랐다. 따라서 용인 지역은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천진암(天眞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양평(陽平)과 광주(廣州)는 서학을 연구하던 남인 학자들이 많이 은거하여 살던 곳이기 때문에 용인 지역사람들과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천주교가가 전파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계속된 박해를 피해 타 지역 천주교도들이 유입되어 은거하던 곳이 많았다. 특히 원삼면 지역은 양지 골배마실에서 성장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된 김대건이 문수산 주변이 위치한 문촌리 고초골이나 문시랑이 사암리 용바위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천주교 신도가 많았다.

조선시대 긴급한 통신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 봉수(烽燧)였다. 당시 용인지역의 봉수는 포곡읍 마성리의 석성산 봉수대와 원삼면 맹리의 건지산 봉수대가 있었다. 이들 봉수는 죽산(현 안성) 망이산 봉수에서 건지산 봉수로 연결되고 다시 북쪽 석성산 봉수대로 연결되어 광주의 천천현(광주 천림산)으로 이어져 서울의 목멱산(현 남산)에 다다르는 것이다. 건지산 봉수대는 건지산 석성산 정상 해발 411m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도에서 서울에 이르는 제2로선이었다. 제2로선은 부산 다대포의 노봉에서 양산, 언양, 경주, 영천, 신영, 의흥, 의성, 안동, 예안, 영천, 봉화, 순흥, 풍기, 단양, 청풍, 충주, 음성, 죽산(망이산), 양지(건지산), 광주(천천현)를 거쳐 서울 목멱산에 이르렀다. 「여지도서(輿地圖書)」 上 경기도 용인현 군병(軍兵) 조에는 봉군이 25명이고 봉군보가 75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봉군 5명이 조를 이루어 5교대로 월 평균 6일씩 근무하였으며, 봉군보 75명은 실제 복무하지 않는 대신 봉군들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봉군 1인당 3인씩 배치되었으며 봉졸은 천역(賤役)으로 관리가 죄를 범하면 봉졸로 배치되기도 하였다는 기록에서 건지산 봉수의 운영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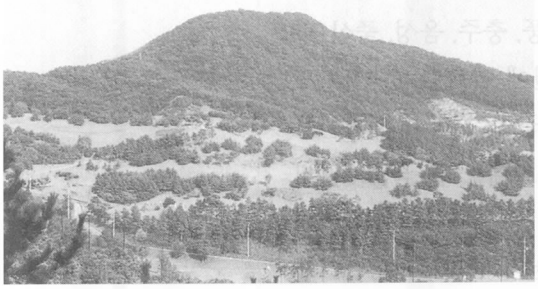
건지산 봉수지(巾之山 烽燧址)

- 소재지 : 맹리 산 47번지
- 시 대 : 조선시대
- 규 모 : 1백여 평

◀ 〈지도2-6〉 건지산 봉수위치도

산 모양이 방건(方巾)과 같다하여 건지산으로 부른다고 하며 해발 410.7m이다. 남동으로 죽산(안성) 망이산(望夷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용인의 석성산(石城山) 봉수지에 응한다. 「고적자료집」의 기록에 "주위 90㎝의 석단(石壇)이 있고 중앙에 약 4.5m의 토만두(土饅頭)형 대(臺)가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석단은 모두 허물어 졌으나 높이 약 2m, 가로 4~5m, 길이 7~8m의 만두형 봉수단이 잡목에 가려져 있다.

봉수지 남쪽 산기슭에 봉화지기가 살았다는 집터가 남아 있다. 건지산 봉수지에서 정남향으로 망이산이 바라보이고 서쪽으로 직선거리에 석성산 봉수지가 바라보인다.



2:37 건지산봉수 원경



2:38 건지산봉수 남쪽 출입시설

(김태근, 윤경오)

제2절 근대의 원삼

1. 근대 원삼의 변화

용인의 동부지역에 위치한 원삼면(遠三面)은 동쪽으로 백암면과 접해있고, 서쪽은 동부동 해곡동과 이동면 묵리에 접하여 있다. 또 남쪽은 안성시 보개면 · 고삼면에, 북은 양지면과 이천시 마장면에 접하였으니, 동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분지형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양지현의 목악면(木岳面)과 주서면(朱西面)의 곡돈현(曲頓峴, 일명 곱등고개)을 경계로 하여 동북쪽의 광곡리(지금의 사암리)일대를 합치고 좌찬현(佐贊峴, 현 좌전고개)을 경계로 하여 동남간의 원일(遠一) · 원삼면(遠三面)이 합쳐져 있다.

원삼면은 문수산과 쌍령산 · 구봉산 · 건지산 등 해발 400m 이상의 산악능선이 병풍처럼 사면을 감싸안고 중앙은 야산과 농경지 등으로 넓은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한강 상수원인 청미천이 발원하여 미평지역을 가로 지르고 있어 매우 아늑하고 온화한 편이다. 따라서 옛부터 이 지역은 땅이 기름지고 곡식이 잘 영글어 대규모 영농업이 번성하였으며, 『택리지』에도 "령(嶺)과 계곡이 멀지 않아 난세나 평시에 살기에 알맞다"고 하였다.[1]

이곳 주민들은 곱등고개의 자락이 높아 용인 시내보다는 오히려 안성 장터를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원삼면에서 안성으로 가는 길 역시 매우 협소하고 험난하였으나, 1918년 도로를 확장하여 길을 넓혔다. 이러한 사실은 쌍령산 중간자락에 치도비(治道碑)가 남아있어 알 수 있는데, 당시 이 도로 확장은 원삼면 집단세지 성씨 중 하나인 해주오씨 오동평(吳同平)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2] 이에 비해 원삼에서 곱등고개를 거쳐 용인읍내로 이어지는 도로는 1938년 일제에 의해 확장되었다고 한다.

원삼면의 행정적 변화는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식민지 지배체제를 공고히하기 위해 1914년 행정구역을 강제 통폐합하면서 다시금 일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를 더욱 공고히 위해 1914년 3월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전격 실시하였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부-군 폐합에 이어 군과 면의 통폐합을 감행한 일제는 조선 민족의 말단행정기관인 면(面)을 장악

1) 『내 고장 용인 지명 · 지지』,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1, 323쪽.



2:39 오동평치도비

2) 원삼-안성간 도로 편에 남아있는 치도비에 의하면, "戊午十月治道 主張吳同平"으로 적혀 있다.

하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도는 492개 면을 폐합하여 250개면으로 대폭 감축되었다.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조치로 인해 용인의병의 중심지였던 양지군과 죽산군이 폐합되고 말았고, 용인군은 죽산군의 원일, 원삼 근1, 2, 3면과 · 양지군의 전지역을 합쳐 12개면을 포괄하게 되었다. 당시 용인군은 경기도 이천(利川)군수였던 주영환(朱榮煥)이 새 군수로 이전 발령되었고, 1915년 군 소재지도 수여면 김량장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원일면과 원삼면 · 목악면 3개면 일원이 합쳐졌다 하여 원삼면으로 칭하게 되었다.[4]

4) 『매일신보』1913년 12월 29일자 호외 ; 1914년 3월 1일자 ; 3월 15일자.

면의 통폐합으로 인해 면 재정이 증가하고 행정력이 강화되었으나, 이는 일제가 지방의 일선행정단위를 장악하고 지방농민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면 통합에 이어 동(洞)과 리(里)의 토지 및 조세정리에 착수하여 1918년 11월경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전통적 자치조직은 급격히 와해되었고, 일제는 말단행정기관인 면(面)을 중심으로 조선의 지방행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식민착취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강압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 일본의 조선주차군 충주 수비구 보병 제 23연대(대좌 橋本三郎)는 수원에 주력부대를 두고, 용인 양지군에 수비대를 설치하였다. 나아가 일제는 용인시내인 김량장리와 백암에 헌병분견소를 파견, 배치하였다.[5] 이러한 일제의 조치는 당시 죽산과 원삼 등지에 뿌리 깊게 퍼져있던 항일운동과 지역정서에 대한 대응으로 여겨진다.

5) 金正明 編, 『朝鮮駐箚軍歷史』(東京 : 嚴南堂書店, 1986), 108쪽.

당시 원삼면의 학일리 · 죽릉리는 해주 오씨(海州 吳氏)의 집성촌으로 항일의병장인 오인수(吳寅洙)를 비롯해 광선(光鮮),의선(義善) 등 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하였다. 오인수는 포수출신의 의병장으로 원삼 · 안성 · 죽산 등 용인 동남부지역을 활동무대로 삼았으며, 오의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역임하고 의열독립항쟁에 투신하였다. 특히 이곳 능촌(陵村, 일명 능말)은 항일지사 여준(呂準, 1862~1932)선생이 이 마을 오태선(吳台善) · 오용근(吳龍根) 등과 협의해 1908년 9월 삼악학교(三岳學校)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사는 이 마을 전 주사 오항선(吳恒善)이 자기 집을 기부했다고 한다.[6]

6) 『대한매일신보』1908년 9월 19일자.

문촌리 문시랑 마을은 죽산 3대 길지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곳으로 영-정조시대 무신 이주국(李柱國)의 후손들인 전주 이씨(全州 李氏)가 큰 세가를 이

루고 있었다. 또한 맹리(일명 맹골)에는 약 4백년 전부터 양천허씨(陽川許氏) 묘역이 있는 집성촌으로, 북로군정서 대대장을 지낸 허재욱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충절의 고장인 용인의 원삼면은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운 항일의병들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었다.

2. 용인의 초기 의병활동과 원삼면

조선왕조의 세도정치에 대한 개혁실패와 날로 고조된 제국주의 침탈은 필연적으로 민중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삼정의 문란으로 일컬어지는 정부와 봉건지주의 학정에 대한 저항은 애초 활빈당 등 조세저항으로 시작되다가 1860년대 남부지방의 대규모 민란에 이어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분출되었다. 용인을 비롯한 경기지역 주민들의 반봉건, 반제국주의운동 역시 집단 조세저항과 '도적행위'에 이어 동학혁명 참가, 그리고 반일 의병투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용인지역의 반봉건 활동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자료는 '도적'들이 출몰했다는 기사이다. 1892년 3월의 기사에 의하면, 용인을 비롯해 경기도 내의 고양 · 파주 · 진위 지역의 도적무리가 가장 심하여 "길이 막히고 역참이 텅 비었으며" 자체 경비로는 체포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7]

이듬해 3월 용인과 죽산의 동학교도들이 충청남도 보은에서의 집회에 참가한 이후, 용인 역시 본격적인 농민항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1894년 9월 동학교도들이 죽산과 안성을 점령하였고, 이에 정부는 장위영 영관 이두황(李斗璜)을 죽산부사로 파견한 것이다. 이두황은 장위영 1개 중대를 이끌고 10월 6일 용인에 이르러 일본군 30명을 만난 후, "비적(匪敵) 20명을 수색 체포하여 괴수 이용익(李用翊) 등 4명을 효수하고" 나머지 16명을 방면하였다.[8]

정부군과 일본군의 무력진압에도 불구하고, 봉건왕조의 학정에 대한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1896년 2월 용인군수 김순승이 피살되었고, 그해 5월 6일 용인주민 100여명은 군기고 문을 깨뜨려 군기와 재물을 탈취해 달아났다.[9]

이어 1899년 8월 조세부과를 부당하게 증가시킨데 대해 용인 농민들이 관아로 몰려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군수 이민창(李敏昌)으로부터 오히려 난타를 당하자, 농민들이 관아로 쳐들어가 군수를 결박해 군 밖으로 축출

7) 『고종시대사』1892년 3월 18일자.

8) 『고종실록』1894년 10월 6일자 ; 『동학란기록』상, 259~265쪽.

9) 『독립신문』1896년 5월 21일자.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분노한 농민들은 수서기를 결박해 김량장(金良場)을 지나다가, 총을 쏘는 병사들에게 주동자를 잡혔고, 죽산(竹山)군수가 사건조사를 위해 급파되었다고 한다.[10]이어 1900년 8월 용인군수 유진철(柳鎭哲)이 상경하기 위해 행장을 꾸려 놓았는데, 밤새 도적이 관사에 침입해 모두 탈취해 가는 일도 벌어졌다.[11]

10) 『황성신문』1899년 8월 11일자 ; 8월 16일자.

11) 『황성신문』1900년 8월 3일자.

구한말의 의병활동은 크게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을미의병(1896~1897년)과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조치에 반발한 의병전쟁(1907~1910년)으로 구분된다. 용인 주민들 역시 이전의 개별적인 저항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 전국적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용인 주민들이 참여한 전기의병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던 1896년 이천수창의소 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천의 김하락(金河洛) 의병장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의병들이 규합한 이 연합의진은 용인을 비롯해 광주 · 수원 · 안성 · 양평 등 의병 1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창의소를 설치하여 광주 백현(魄峴)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승전한 이후, 이현(梨峴)전투를 벌이고 남한산성에 입성해 수차례 전투를 벌인바 있다. 이 연합의진에 용인의병은 초기부터 약 300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하락은 『진중일기(陣中日記)』에서 "신용희(申龍熙)가 용인 · 안성 등지에서 자발적인 병대를 모아왔다"고 기록했기 때문이다.[12] 그러나 남한산성에서 패한 연합의진은 충청도 제천 방면으로 이동해 항쟁을 계속하였다.

12) 金河洛,「陣中日記」『독립운동사자료집』1, 585쪽.

3. 후기 용인의병과 원삼면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 일어난 경기지역의 후기의병은 1907년 11월 허위(許蔿) 등 13도 창의군으로 결집하였다. 13도 창의군은 경기도 양주에 모여 서울탈환작전을 벌이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 연합의병은 지도부의 분열로 인해 서울로 가는 길목에서 패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용인지역 역시 잔여 의병들이 광주와 안성 · 양지, 그리고 원삼면 일대에서 꾸준히 활동하였다. 주로 임옥여(任玉汝) 의병부대를 비롯해 정주원(鄭周源) · 이익삼(李益三) 의병부대 등이 일본군과 친일세력에 대한 응징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원삼면 하사동 출신인 정주원과 주변지역 의병들로 구성된 정주원 의병부대는 원삼면을 비롯해 안성과 수원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좌전고개에서 일본군들과 교전을 벌이기고 하였고, 일본 경찰주재소와 친일세력을 습격하는 한편, 토지조사사업의 앞잡이인 측량수도 응징하는 등 일제의 경제침략에도 저항하였다.

당시 용인의병을 묘사한 기사에 의하면,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마을에 쳐들어간 의병들은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이나마 잘사는 집에 들어가 주식(酒食)과 돈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인명을 해치거나 재산을 늑탈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또 양지와 양성은 "의병의 소굴"이 되었으며, 김량장(金良場)에는 의병 수백 명이 있어 "낮에는 근거지를 삼고 밤에는 밖에 나가 약탈한다"고 전하고 있다.[13]

용인의병들은 용인지역에 진출한 친일관료나 일진회 등에게도 응징을 가하였다. 특히 을사오적의 한 사람이며 일진회 회장을 지낸 송병준(宋秉俊)의 별저가 있는 양지군에는 의병들의 출몰이 매우 잦았다. 당시 의병과의 교전으로 일본군 다수가 사상하거나, 용인군수이며 일진회 지회장인 심의혁(沈宜嫌)이 피살될 정도였다. 이처럼 의병의 잦은 공격으로 위협을 느낀 일진회 회원들은 1907년 8월 7~800여명이 송병준의 집으로 피신하였고, 그의 집에는 약 50명의 일본군이 상주할 정도였다.[14]

당시 신문자료에 의하면, 1907년 9월경 용인 선곡동(仙谷洞)에 모인 의병의 규모는 약 700여명에 이르렀다. 의병들은 일제로부터 화승총 등을 빼앗아 무장한 후 죽산 방면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음죽군 의병들과 합세해 일본군 수색대와 수차례 교전하는가 하면, 과감히 읍내로 진격해 일본 헌병파견소와 관공서 등을 파괴하고, 일진회 회원들을 응징한 후 퇴각하였다. 또한 양지군에서는 의병 300명이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1908년 3월 26일 죽산군 좌전 비탈길에서 의병 50여명이 일본군 토벌대와 조우하여 1시간 이상 교전하다가 잠적하였던 일도 있었다.[15]

원삼면 지역의 의병활동을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내 고장 용인 독립항쟁사』 이인영, (용인문화원, 1995)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대한매일신보』1907년 1월 16일 ; 9월 6일자.

14) 『대한매일신보』1907년 8월 24일 ; 8월 27일 ; 9월 5일자.

15) 『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12일 ; 12월 20일 ; 1908년 1월 22일자 ; 1908년 4월 29일자.

◑ 죽릉리

원삼면 죽릉리에서는 1908년 3월 30일 이 지역 출신 의병장 정주원(鄭周源)이 인솔하는 의병 80여명이 죽산군 원삼면 능동(죽릉리)에서 숙영하던 중

이튿날 기습해온 이천수비대, 경찰관 연합대와 조우하여 약 1시간동안 교전하였다. 의병은 4명이 교전 중 전사하였고, 나머지는 잠적하였다.

〈참고 : 의병항쟁사 3〉

◑ 원일면

1908년 3월 31일 죽산군 원일면에 의병 3명이 나타나서 민가 3호에 들어가 의병항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징취하였다.

〈참고 : 경비 제118호, 수원경찰서장 보고〉

동년 10월 9일경부터 의병 3-8명이 죽산군 원일 · 원삼지역에서 활동 중 일본 경찰수비대 첩보망에 포착되어 활동을 중지하고 잠적했다. 의병은 대일항쟁에 필요한 군수전을 모금하였고, 민가 4-5호가 이에 호응하였다.

〈참고 : 경비 269의 1호, 국편 독립운동사 1〉

◑ 고당리

1909년 4월 21일 오후 7시 죽산군 원일면 순당동(현재 원삼면 고당리)에 의병장 맹집군(孟集君)이 인솔하는 의병 11명이 나타나 잠복 중이었다. 의병 일행은 모두 국방색 양복을 착용하였고, 30년식 총 1점, 단발총 7점과 군도(軍刀) 1점을 휴대하고 있었다. 이때 양지군 주재소에서 파견된 밀정에 탐지되었음으로 순사 · 수비병이 긴급 출동하여 동일 밤 11시 의병 잠복지를 포위 습격하였으나, 이미 잠적한 후였다. 수비대는 각 마을을 돌며 수색하였으나 끝내 종적을 찾지 못하였다.

〈참고 : 경경비수 제1630호 수원경찰서정 보고서〉

◑ 두창리

1909년 9월 3일 밤 9시경 양총을 휴대하고 보통 한복 차림을 한 폭도 5명이 원삼면 두동(현재 두창리)거주 이종벽(李鍾壁)의 집에 잠입, 동인을 결박하고 동면 가임동(현재 가좌리)거주 이봉하(李鳳夏)의 집까지 대동한 후, 이들을 위협 활동자금 3원을 징취후 서북방 원일면 쪽으로 잠적하였다. 원삼면장 윤치복(尹致馥)의 신고에 의하여 목하 엄중히 정철중이다.

〈참고 경경비수 제1384호〉[1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삼면에서는 좌전고개 · 죽릉리 · 원일면 · 고당리 · 두창리 등지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본 군대의 본격적인

16) 이인영 편,「내 고장 용인 독립항쟁사」, 용인문화원, 1995 참조.

소탕전이 전개되었던 1908년 후반 이후에도 용인의병들은 소규모 부대를 편성해 저항을 계속하였다. 의병들은 광주나 포곡 · 모현면, 죽산 등 외곽지역에서 10~30명 규모로 이동하면서 일본군을 습격하는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09년 5월경 의병 40~50명이 출몰해 일본군대가 출동했다는 기사에서 확인되듯이,[17] 용인의병들은 일제의 대토벌작전에도 맞서 싸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 수원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의 조선주차군 충주수비대의 주력부대가 상대적으로 신속히 출동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이 의병들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여겨진다. 이들은 소규모로 편제되어 신식 양총을 갖고 신출귀몰하게 이동하면서 토벌대를 따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17) 『대한매일신보』1908년 11월 28일 ; 1909년 5월 12일자.

용인과 죽산 · 음죽 · 양성 등지의 의병부대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며 활동한 듯하다. 한 예로 1907년 11월경 일본군 토벌대가 양성군에 잠복중인 의병장을 체포하여 죽산군으로 압송하자, 용인 굴암에 있던 의병 280명과 죽산군 협곡리와 산전에 있던 의병 등 65명, 음죽군에 있던 의병 30명이 서로 연락하여 한 곳에 집결하기도 하였다.[18]

18) 『황성신문』1907년 11월 16일자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17일자.

특히 원삼면 출신이며 이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한 정주원(鄭周源) 의병부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주원은 당시 죽산군 원삼면 하사리(竹山郡 遠三面 荷寺里)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당시 38세)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되는 등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의병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는 먼저 의병활동을 하고 있던 서용범(徐用凡)과 협의해 그의 휘하의 부장이 되었고, 이후 용인 굴암사 인근에서 30여명을 중심으로 의병모집에 힘써 곧 양지군 양성군에서 약 150여명의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곧 900여명의 대규모 의병부대로 발전시켰다.

일제의 의병탄압이 날로 심해지자, 정주원은 이 의병부대를 3개 중대로 나누었다. 곧 1개 중대는 자신이 인솔하고 나머지 2개 중대는 부하에게 인솔케 하여 양지(陽智)와 죽산군 일대에서 활동하도록 하였다. 그중 신순중(申舜重)이라는 인물이 분대장의 임무를 맡아 활동하였는데, 이로 보아 정주원 의병부대도 체계적인 조직편제를 갖추고 활동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측 재판기록에 산견되는 이 부대의 활동인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사근(金士根) : 양지군 주서면 어득운리 거주(현 처인구,운학동), 농업, 1884년생(당시 23세)

- 박덕삼(朴德三) : 용인군 하동면 시묵동 거주, 농업, 1886년(1907년 : 21세)
- 송교원(宋敎源) : 양지군 고서면 창리 거주, 농업, 1877년생(1907년 : 30세)
- 신현구(申鉉九) : 죽산군 원삼면 분촌, 농업 1885년생(1907년 : 22세)
- 최국만(崔國萬) : 양지군 남면 사동(현 내사면 남곡리), 1858년생(1907년 : 49세)
- 황명운(黃明云) : 죽산군 원삼면 능촌(현 원삼면 죽릉리)
- 안춘경(安春敬) : 경기도 수원군 태촌면 진언리, 대장장이, 1877년생(1907년 : 30세)
- 조성습(趙性習) : 충남 덕진군 간천, 1874년생(1907년 : 33세)
- 신순경(申舜重) : 충남 당진군 하대면 용두리, 농업, 1883년생(1907년 : 24세)
- 한순팔(韓順八) : 관련사항 미상
- 정대준(丁大俊) : 관련사항 미상

정주원 의병부대에 참여한 인물을 통해 의병부대의 조직적 특성을 보면, 첫째 정주원 의병부대의 참여인물은 대부분 용인지역 출신인물들이라는 점, 둘째 참여인물의 계층은 의병장 정주원을 포함하여 대부분 농민이라는 점, 셋째 연령적으로는 20~30세의 청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정주원 의병부대의 활동영역은 용인 죽산 양지면에서 나아가 수원과 안성에서 당진이나 심지어 풍도(豐島) · 서산(瑞山)까지 이르고 있었다. 그 활동내용은 대일항쟁과 군자금 모집활동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대일항쟁의 내용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융희 2년(1908) 2월 : 용인군 여본구리에서 일본수비대와 교전
- 융희 2년(1908) 3월 30일 : 80여명의 부대로 죽산군 원삼면(현 원삼면) 능동에서 일본수비대와 1시간 교전
- 융희 2년(1908) 4월 : 양지군 사동(寺洞)에서 수효미상의 일본군과 교전
- 융희 2년(1908) 4월 : 용인군 요봉곡(料鳳谷)에서 수효미상의 일본군과 교전[19]

이상 현재 확인되는 정주원 의병부대의 대일항전 관계 기록들인데, 이외에

1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78~79쪽.

도 다른 항쟁사실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단 위의 사실로만 판단한다면 정주원 의병부대의 대일항쟁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융희 2년(1908) 2~4월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정주원 의병부대의 군자금모집과 관련한 활동은, 융희 3년(1909) 4월 16일 죽산군 서삼면 시암(西三面 是岩)에서 일본인 中原房吉, 尾寄義市, 原喜一 등을 처단하고 재물을 압수한 사실들에서 볼 수 있다. 대개 일본인이나 일제통치에 안주하려는 친일부호 등은 군자금 모집의 대상이었다. 정주원 의병부대의 이러한 활동은 융희 2년(1908) 7월 15일 의병장 정주원이 충청도 해미군 역서촌(海渼郡 亦鼠村)에서 피체된 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20]

이러한 용인의병들의 끈질긴 저항에 대해 일제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을 벌여 전국 의병과 그 가족에 대한 체포와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의 의병들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용인지역의 소규모 부대도 괴멸되고 말았다. 이후 전국에 흩어진 의병들은 만주와 연해주 등지로 망명하여 독립군으로 전환하였다. 총칼로 군림한 일제의 무단통치는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라는 우리민족의 저항에 또다시 부딪히게 되었다.

20) 주도인물 참여세력 활동지역 등을 살펴볼 때 정주원 의병부대는 전형적인 용인지역 의병이었다고 하겠다(『용인군지』, 109~110쪽).

4.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원삼면 사금광

대한제국과 의병들을 총칼로 압살한 일본 제국주의세력은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친일파들을 대거 동원하여 강제합병을 강행하였다. 국권을 강제침탈한 일제는 곧 총칼을 앞세워 토지와 물자수탈과 사회통제의 길로 나아갔다. 식민지 통치기반을 다지기 위해 일제가 먼저 추진한 일은 전국의 행정기관인 면과 읍 등 말단행정기관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1914년 이천군수였던 주영환(朱榮煥)을 이전 발령한 이후 1919년 1월부터 각 면의 면장을 임명하였다. 이때 원삼면 면장은 윤치하(尹致夏)가 부임하였는데, 1921년부터 1928년까지는 이 지역유지인 오항선(吳恒善)이 맡았다. 이후 백남규(白南圭)가 1929부터 1939년까지 면장을 지냈으나, 1940년부터는 일제의 전시동원체제에 따라 일본인이 직접 맡게 되었다.[21] 당시 원삼면 사무소는 죽릉리 능골에 있었는데, 면 사무소 옆 현재의 파출소 자리에 일본헌병의 지소가 자리했다고 한다.



2:40 금광사진

21) 『구한말과 일제시대 용인군내 관리직원록』, 용인군, 1992.

한편, 조선을 강제병합한 일제는 식민지 경제를 적극 수탈하기 위해 용인 원삼면 일대에 사금광을 적극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강점 이전부터 조선의 광물자원에 조목해 온 일제는 1910년말 회사령을 공포하면서 일본인 재벌에 의한 광업개발을 유도하고 전국적인 광산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일본인 기업인들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금광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이미 1912년 6월 13일 용인군 기곡면(현 (구)기흥읍)에 사금광 10정(町) 45간(間)을 증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그해 9월 28일 원삼면 일대 17만 3,792평에 달하는 면적의 광산을 허가해 주었다.[22]

22) 『朝鮮總督府官報』 42호 ; 49호.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용인은 일찍이 광산업이 적잖이 발달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조선금광의 수탈을 위해 1915년 12월 26일 광업령을 개정공포하고, 금광을 목적으로 한 광업권자도 그 금광 구내에 사금광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사금채취권을 출원하지 않아도 채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18년 일제는 일본인들이 거의 한국광산을 독차지하게 되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광업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즉 1918년 금광 · 은광 · 연광 · 철강 · 사금 및 사철(砂鐵)에 대해 이후부터 광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광물은 그 특혜의 하나였던 것이다.[23]

23) 이배용, 「일제초기 광업법 개정과 광업침략 실태」, 『한국근대광업침탈사연구』, 일조각, 1989, 240~253쪽.

일제에 의한 사금광 채굴실태는 1915년 사카이(酒井政之助)에 의하여 작성된 『화성내영(華城乃影)』의 '용인군 현황' 편에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본부(本部)는 금광이 많아 현재 4광구, 사금 2광구가 있고, 출원 중인 것도 있어 금광 총면적 195만3천평, 사금광 9천400평으로 어느 광구든지 상당한 이익을 올려 한편으로 보면 용인군은 금광으로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있다.[24]

24) 酒井政之助, 『華城乃影(1915)』(『구한말과 일제시대 용인군내 관리직원록』, 130쪽).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용인지역은 당시 금광 및 사금이 중요한 지하자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의 금광과 사금은 용인군 원삼면 안골과 미평리 일대에 펼쳐져 있었다. 더욱이 1937년 4월, "용인군에서 2천여 명의 노동자를 모집해 각지에 배치했다"는 당시 신문보도를 보면, 이 지역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광산이 개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25]

25) 『每日申報』 1937년 4월 3일자 3면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원삼면의 사암리 안골과 미평리 일대에는 1910년대 초기부터 사금광을 운영하려는 일본인 자본가들이 적극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원삼면 일대 사금광 운영의 실태는 이 지역을 자세히 취재한 한 기자에

의해 보다 상세히 알려졌다.

"일제 당시 금광(또는 금점)은 안골마을부터 미평뜰까지 형성되어 있었다. 미평리에서는 주로 뱃금점이었고, 안골은 석금을 채취했다. 금점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여기저기 펼쳐진 모습을 보고 "만벌탕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전기불로 밝혔음은 물론이다. 외진 곳이어서 안골이라 하지만 일제 때에는 관방이 있었고, 전기까지 들어온 것도 그 탓이다. 직책과 일이 세분화된 금점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장을 '연상'이라 불렀다 한다.

현장 소장격인 감독은 '덕대'라 했고, 그 밑으로 인부들이 있었다. 돌과 모래가 섞인 채 채취한 금을 물에 씻어 분리해 내는 일은 '함지질꾼'이라 했다는데 이무래도 가장 힘든 일은 금 채취 굴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퍼내는 일이었다. 낮 밤을 가리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는데 밤새 물을 퍼내면 '하루 반' 품을 계산해 줬다고 한다. 고되고 반복적인 일에 그나마 흥을 섞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법. 그들은 노동요를 부르며 일을 했다. 둘이 한조를 이루어 두레로 물을 퍼내면서 하는 일명 '물푸는 노래'다. 김희백 이장님과 안치양 옹(82, 원삼면 독성리)이 기억하는 가사는 이렇게 흐른다.

"헤이려어 물넘어간다. 배뜸에 초열이란 열에 하나 열에 둘, 열에 셋---스물이라 막내딸 시집가기 네. 스물하나 스물둘이요"[26]

이처럼 원삼면 안골과 미평리 일대에는 광범위한 사금광 산업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금광의 흔적들이 농촌지도소 맞은편 언덕에 다수 남아 있어 금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농촌 전원마을이었던 원삼면 사암리 · 미평리일대는 이 사금광 산업의 형성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27]

안골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성장해 현재에도 살고 있는 김희백 옹(72)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어려서 본 것이라 더 크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났지. 큰 금광 굴이 3개 이상 있었어. 그 옆으로 돌가루에서 금을 분리 가공하는 금방

26)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2000년 7월 1일자-마을이야기 편, 원삼면 사암리 안골마을 상.

27) 우상표, 「한 마을의 광산 흥망사를 통해 본 생활사-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안골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제출리포트, 2005. 6.

앗간도 있었고. 인부들도 많았거든. 들은 얘긴데 한 300명까지 됐었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주거하는 사택이 또 크게 있었지. 2층으로 된 사무실까지 해서 대단지처럼 보였지.

금점이 얼마나 번성했던지 여기저기 펼쳐진 모습을 두고 만벌탕 같았어. 한방 중에도 대낮처럼 전기불로 밝혔고 집집이 외지에서 온 기술자들과 잡부들이 셋방살이를 했어. 그러니 시골동네가 어떠했겠나?"[28]

28) 김희백(1933년생, 원삼면 사암리 출생)의 증언(우상표, 2005년 한양대 대학원 레포트에서 재인용).

석금광을 중심으로 사금광이 혼재했던 당시의 안골은 급격한 생활변화를 겪어야 했다. 마을 앞 농토는 금광 개발로 인해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20여명의 주민들이 광산노동자로 전업했던 것이다.

"대개 보름날과 말일 날, 간조가 있었는데, 동네 일대가 흥청거렸어. 시골 마을에 술집도 많았지. 싸움질을 해서 주재소에서 순사가 나와 잡아가기도 했으니, 동네가 좀 어수선했겠어? 도박도 용인에서 가장 센 곳으로 2곳이 소문났는데, 남사는 벌판이 넓어 부자들이 많았고 농한기인 겨울에 도박이 컸던 반면 이곳은 순전히 탄광 때문이었지."[29]

29) 한건수(1935년생, 원삼면 고당리 출생)의 증언(우상표, 2005년 한양대 대학원 레포트에서 재인용).

이처럼 광산은 대개의 경우 마을에 여러 가지 폐해를 몰고 왔다. 토지와 가옥·무덤·지방을 가리지 않고 파헤치고 보상도 하지 않는 일, 부녀자를 겁탈하고 희롱하는 일,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일, 주인 허락도 없이 집을 빼앗고 기거하며 집과 가축을 빼앗는 일, 마을을 횡행하며 소란을 피우고 인명을 살상하는 일, 술과 도박을 일삼는 일, 물가가 치솟고 민심이 뒤숭숭해지는 일 등의 폐해가 채광지역 어디에서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30]

30) 김양식, 「대한제국기 덕대 광부들의 동향과 노동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4호, 2000년 겨울호, 43~45쪽.

이 마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광산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1919년 3월 21일 일어난 만세운동과의 관계이다. 바로 이곳에서 10여리 떨어진 좌전고개(일명 만세고개)는 용인 관내에서 최초의 만세운동 발생지이기 때문이다. 만세운동의 주된 활동지인 좌항리·고당리·맹리·문촌리 역시 모두 안골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문촌리의 경우 지금은 고당리로 해서 안골로 가야 하지만 과거에는 문촌리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안골 농촌지도소가 나온다.[31] 따라서 다른 광산지역에 비추어 볼 때, 사금광으로 인한 일제수탈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인

31) 박환, 「용인지역 3·1운동과 항일유적지」, 『용인지역 3·1운동의 전개와 특성』, 2004. 3. 24~25쪽 참조.

한 노동력 착취는 1919년 항일운동의 불씨가 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원삼면 일대의 사금광은 이후 1940년대 일제의 전시동원체제로 전기가 모자라 채굴작업이 끊겼다고 한다. 하지만, 사금광은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져 1980년대 초반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대부분 사암저수지 내에 묻히거나 농촌지도소 신축당시 메꿔지고 말았다. 현재 일제의 금광자원 약탈의 현장인 사금광 터는 사암리 헌산중학교 뒷산 등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32]

32) 원삼면 사암리 안골의 사금광굴 현장을 안내한 홍사국 씨(원삼면 고당리 거주)는 일제의 침략현장에 대한 안내문이라도 건립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당부를 남겼다.

5. 용인과 원삼면의 3 · 1만세운동

동학군과 의병을 무력진압하고 국권과 토지를 강제수탈하려는 일제는 민족의 생존과 인권을 지키려는 전 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딛쳤다.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곧 들불처럼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수원 · 화성 ·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은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 그 영향은 더욱 컸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그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고종 황제의 인사날에 참여한 이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용인의 경우 1919년 3월 21일 원삼면과 양지면의 경계인 좌전고개에서 그 만세의 횃불이 타올랐다.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총 13회, 13,200명이 참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망 35명, 부상 139명, 피검 500명으로 일본측에 기록되어 있듯이 용인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활발한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이 만세운동은 3월 21일 원삼면 좌전고개에서 시작되어 용인읍내와 포곡면 · 기흥면 · 수지면 · 남사면 · 외사면 등 용인 전역에 걸쳐 남여노소 모두 참여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3월 30일 읍내에서는 2천명, 수지면에서는 1500명이 참여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외사면에서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여 헌병의 발포로 1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33]

33) 용인 3 · 1만세운동에 관하여는 용인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념학술대회, 「용인지역 3 · 1운동의 전개와 특성」, 2004. 3.1 참조.

원삼지역의 만세운동은 용인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당시 만세운동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수감자에 대한 재판기록과 후손들의 증언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이은표(1974년 사망) · 김영달(1967년 사망) · 이인하(1966년 사망) · 김은수(1960년 사망) 등 운동 당사자들이 대부분 고인이 되었으

나, 다행이 생존 당시의 증언 역시 여럿 남아 있다. 우선 1919년 5월 9일자 재판기록에서는 원산면 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판결하고 있다.

〈판결문〉

1. 1919년 3월 21일 황경준 · 최상근 · 안명옥 · 김은수 등은 주민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고, 주민 수백명과 함께 원삼면사무소 앞에서 오전 3시경부터 동 6시경사이에 조선독립만세를 큰 소리로 연달아 불렀다.
2. 이은표와 이인하는 같은 곳에 모여 있는 군중들에 대하여 미리 만들어 둔 구한국국기 4류를 교부하여 민심을 선동한 후 위위 군중과 함께 앞에서와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3. 이용환 · 김성남 · 김영달 · 김창연은 이날 앞과 같은 장소에서 위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안녕질서를 방해한 자이다.

〈판결내용〉

징역 10월: 황경준, 최상근, 안명옥, 김은수, 이은표, 이인하
징역 6월: 이용환, 김성남, 김영달, 김창연

〈참여자〉

좌항리: 황경준(농업, 37세), 김성남(농업, 18세), 김열달(농업 17세)
사암리: 최상근(농업, 28세), 안명옥(농업, 49세), 김은수(여인숙, 26세), 김창연(농업, 27세)
맹리: 이인하(농업, 31세), 이은표(농업, 23세), 이용환(농업, 41세)

위의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원삼면 지역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1일 오전 3시경부터 오후 6시까지 원삼면 면사무소에서 만세운동이 진행되었으며, 황경준 · 최상근 · 안명옥 · 김은수 등은 주민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였고, 이은표 · 이인하는 구한국 국기를 나누어 주었으며, 이용환 · 김성남 · 김영달 · 김창연이 이에 호응해 참여한 인물들로 파악된다.

3월 21일 원삼면 좌전고개의 만세운동은 김은수의 아들 김사원의 기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1991년 3월 27일 작성된 이 기록에 대

하여 김사원은 작성경위를 다음과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3 · 1만세운동 당시 동리서당에서 통감 셋째 권을 떼고 넷째 권을 배우기 시작했던 겨우 11세의 소년이었으나 사건이 하도 충격적이고 우리 가정에 크나큰 파탄을 가져다 준 사건이기에 72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상황을 기억할 수 있기에 "독립유공자공훈록"을 편집하는데 혹시 참고가 될까하여 이 글을 기고하는 바입니다.

김사원이 작성한 「용인 원삼면의 3 · 1만세운동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19년 3월 21일 새벽에 어디서엔가 와…, 와… 하는 여러 사람의 함성을 잠결에 언듯 듣고, 잠에서 깨어나 어머님을 깨웠다. 그 때 아버님은 출타하신지 10여일이 되도록 돌아오시지 않아 안방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8세인 여동생, 5세인 아우와 네 사람이 자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을 듣지 못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시기에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고 흔들어 깨웠더니 "왜 무슨 소리가 들리니" 하고 귀를 기울이시더니 "글쎄다. 저게 무슨 소리냐. 아마 넓실이나 모래실에서 불이 난 모양이로구나"하시므로 나는 미심쩍어서 옷을 주워 입고 사랑채에 있는 머슴방으로 달려가서 머슴들에게 물어 보려 했더니 머슴들은 이미 다 나가고 방은 텅 비어 있었다. 할 수 없이 대문 빗장을 벗기고 밖으로 나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횃불과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면사무소로 가는 세거리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때서야 납득이 갔다. 며칠 전에 숙부님이 만세 부를 때 쓸 태극기라면서 만드는 것을 구경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위군중이 지나가니 동네에는 부녀자들만 모여서 제각기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들을 떠들다 헤어졌다.

오전 열시 경에 하나 둘씩 만세 부르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우리 큰댁 머슴 최서방이 총에 맞아서 업혀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서방은 오른편 가슴에 관통 총상을 입었는데 요행히 급소는 피했던지 출혈을 많이 했다는데 생명은 붙어있었다. 시골이니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묵은 호박을 쪼개서 앞뒤로 붙이면 화기를 배아낸다고 그리하더니 한두 달 후에는 완치가 되어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인산(因山)에 참례하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가 孫秉熙선생 주도 하에 일어난 서울의 3·1운동 광경을 보고 감동하여 돌아온 朴濟遠·李鳳鉉·李殷杓·金殷秀·金永達·金性男·李容煥·黃敬俊 등이 李殷杓 宅에 모여 원삼면 내에서 독자적으로 대한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합의하고 다시 安明玉·朴濟敏·朴濟楨·金昌淵 기타 수인을 연락원으로 포섭하고 각 부락 유지에게 통지하여 "3월 20일 자정을 기하여 좌전고개(내사면 평창리와 원삼면 좌항리 첩경지에서 최상근이 경영하던 주막집)에서 시발하여 대한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이니, 미리 만반 준비를 갖추었다가 그 날은 산봉우리마다 봉화를 밝혀 이 취지를 전달하는 동시 부락민을 인솔하고 시위행렬에 참가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해 놓고 1919년 3월 20일 자정(子正)을 기하여 주동자와 연락원, 그리고 각 부락에서 모여든 유지들이 오른손에는 태극기를,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좌전동래로 내리 닥치니, 여기에 좌항리·맹리·미평리 사람들이 미리 모여 있다가 합류하고, 여기서 역골고개를 넘어 사암리 모래실 부락 앞에 이르러 여기에 모여 있던 모래실, 넓실 사람들이 합류하고 면사무를 향하여 세거리로 행진하는 사이에 노리개, 용담, 안골 사람들이 합류하여 고당리 면사무소에 이르니 면소마당과 앞 길거리에는 이미 고당리·학일리·문촌리·목신리·독성리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합류하니 모인 군중은 천을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3·1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다고도 하고, 면장을 앞세우고 그냥 만세만을 대대적으로 부르고 다시 면장을 앞세우고 백암리(헌병분대 주둔지)를 향해서 행진하였다고도 하였다. 행진하는 동안 두창리 사람들과 외사면 근창리 사람들이 합세하니 행렬은 더욱 커져서 한 5리 거리에 뻗쳐 실로 장엄했다고 했다.

그런데 선두대열이 비둘기고개를 넘어서 백암천(白岩川)변에 이르러 보니 개울 건너편에는 헌병대가 총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더란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군중이 드리 밀으므로 선봉대가 개울을 건너려는 것을 보자 헌병들은 공포를 쏘아서 위협사격을 하기 시작하더란 것이다. 처음에는 일인헌병(日人憲兵)이 공포를 쏘았는데 한국인 헌병보조원 국모(鞠某)란 자가 실탄사격을 해서 수 없는 사람이 총에 맞아 고꾸라지는 것을 본 앞쪽 군중들이 혼비백산하여 되돌아서 달아나려 해도 뒤쪽에서 영문을 모

르고 전진을 하려고 드리밀으니 대열이 흐트러져서 제각기 뿔뿔이 달아남으로써 시위는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위운동은 곧 용인군내 각 면으로 확산되고 인접 군과 인접도에까지 파급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원삼면 내에서는 그 후에도 며칠간은 동산에 올라가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3월 25일에 경찰과 헌병합동반에게 金殷秀 · 李殷杓가 체포되어 용인 경찰서(용인 헌병분견대)로 끌려가고 계속 시위주동자들과 연락원 그리고 각 동리 유지들이 체포되니 약삭빠른 몇 명만이 감쪽같이 피신하여 체포를 면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용인경찰서로 끌려가서 부락유지들은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등 가진 욕을 본 뒤에 석방이 되고 주동자 10명만 경성지방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검사국에서 심한 고문을 받으며 취조를 당한 후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黃敬俊 · 崔相根 · 安明玉 · 金殷秀 · 李殷杓 · 李寅夏는 징역 10월, 李容煥 · 金性男 · 金永漣 · 金昌淵은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았는데 李容煥만 복종하고 나머지 9명이 복심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니, 김창연 · 안명옥만 1심대로 복종하고, 나머지 7명은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또 기각되므로 할 수 없이 1심대로 복역했다는 것이다.

그 중 김은수씨는 출감이 되었으나 용인경찰서 · 경성검사국 · 감옥 등에서 받은 고문으로 여러 달을 병원에서 지내다 1921년 4월에 환가했으니 체포로부터 환가까지는 만 2년이 걸렸으며, 여러 번 항소를 하고 고문후유증 치료에 70섬지기의 가산을 전부 탕진하여 살림살이는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들은 무한한 고초를 겪었다.

석방 후에도 늘 요시찰인으로 감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해보려 해도 인가나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못하고 극히 한미한 세월을 보내다가 8 · 15해방 후에야 겨우 사람대접을 받았는데 얼마안가 6 · 25 사변이 일어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수복후에야 양지향교의 직원직도 복구가 되고 약간의 재산도 마련되었으나 1960년 1월에 별세하신 것이다.[34]

위에서 보여주는 김사원의 기록 내용은 재판기록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여 주고 있다.

34) 박환, 「용인지역 3 · 1운동과 항일유적지」『용인지역 3 · 1운동의 전개와 특성』, 2004. 31~33쪽에서 재인용.

한편 원산면지역에서는 그 이후에도 만세운동이 계속되었다. 또한 3월 31일에는 원삼면 사암리에서 300명이. 원삼면에서 4월 2일 500명이 시위를 전개하여 발포가 있었다.[35] 원삼지역 3.1운동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주모집단(태극기 제작자 포함), 행동집단, 단순 참여집단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주모집단인 황경준 · 최상근 · 안명옥 · 김은수 · 이은표 · 이인하 등은 징역 10월에 처해졌으며, 행동집단인 이용환 · 김성남 · 김영달 · 김창연 등은 징역 6월을 언도받았다. 이들은 심문 및 수형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행동집단인 이용환의 경우 1919년 4월초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압송되어 반항하다 고문에 턱이 빠져 식사도 못하니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다. 이에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되어 징역 6월을 언도받았으나, 6월 15일 사망하고 말았다.[36]

3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2, 1968, 266쪽.

36) 이용환 공적조서

단순 참여집단은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들로 태형 90대에 처해졌다. 원삼면 좌항리의 경우, 李熊漢 · 張志善 · 張秉植 · 趙龍山 · 黃德在 · 黃瓚景 · 邊用燮 · 朴興道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암리의 경우 姜信福, 가좌리의 韓昇源 · 許忠台 · 金春日 · 朴熙積 · 李秉淵 · 李泰鉉 · 李範驥, 문촌리의 李象喆 · 李殷商 · 吳慶烈 · 徐千吉 · 安在燮 등을 들 수 있다. 1987년에 용인경찰서에 발행한 범죄인 명부 이태현조를 보면 태형을 받은 사람들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용인경찰서발급 범죄인명부〉

1919년 4월 20일 보안법위반 태 90대. 판결 또는 즉결관청 용인헌병대
주소: 용인군 원삼면 좌항리 118번지. 당시 24세. (1896년 1월 13일생) 양반. 직업 농업

이태현 등 태형을 받을 사람들도 용인헌병대에 끌려가 죽을 고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태현의 5남 이원칠과 손자 이봉상(李鳳相) 등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태현은 1919년 3월 3일경 원삼면 좌항리에서 당시 앞장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항일만세를 부른 이유로 이틀 후 용인경찰서 일본헌병대에 밀고 되어 연행, 유치장에 투옥,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혹독한 고문과

매를 맞고 1919년 4월 16일 곤장 90대를 다 맞고 실신, 항문이 빠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들것에 실려 방면되어 집으로 모셨지만 매독이 너무 심해 온몸에 살이 시퍼렇게 퉁퉁 붓고 고열로 도저히 소생이 어렵다고들 하였다. 그 당시에는 매독에는 똥물을 먹어야 살수 있다고들 하여 정말 똥물을 마시게 하니 이틀 동안을 얼마를 토하고 나니 차츰 붓기도 좀 빠지고 혈색도 고열도 좋아져 이잼 곧 살게 되었다고 모두들 하여 집안으로 모셨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병석에서 겨우 일어나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 후 8 · 15해방을 맞이하였을 때는 누구보다도 한없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지만 당시 매 맞은 후유증(탈창)으로 늘 손으로 탈창을 바치고 지내시며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여생을 지내시다가 1977년에 별세하시었습니다."[37]

37) 이원칠(1935년생, 수원시 우만동 거주)과 이봉상(1940년생, 용인 원삼면 좌항리 거주) 증언(박환, 앞의 논문, 35쪽에서 재인용).

원삼면 3 · 1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였다. 40대로는 안명옥(49세), 이용환(41세), 30대로는 황경준(37세), 김은수(37세), 김창연(37세), 이인하(31세), 20대로는 최상근(28세), 이은표(23세), 10대로는 김성남(18세), 김여달(17세) 등을 들 수 있다. 참여지역을 보면, 좌항리 · 사암리 · 맹리 · 가좌리 · 문촌리 등 원삼면의 북부 및 중부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세운동의 시작은 좌항리 · 사암리 · 맹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그후 가좌리 · 문촌리 등에서 다수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가좌리 · 문촌리 지역의 인사들 가운데 태형을 받은 인물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한다. 만세운동의 형량으로 보아 징역 10월에 처해진 좌항리의 황경준, 사암리의 김은수 · 최상근 · 김명옥, 맹리의 이인하 · 이은표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원삼면 만세운동의 참가자들에게서 종교별 특징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농민이었으므로 유교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았나 짐작된다. 그런데 김성남의 경우 천주교 신자가 아닐까 추정된다. 아버지는 김성천(金聖天)이며, 어머니는 차마리아였으므로 부모의 이름으로 보아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다. 직업 신분별로 보면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다만 최상근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김은수는 여인숙을 운영하였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김성남은 당시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김성남(金性男)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본적은 좌항리 71번지으로 경주 김씨이다. 좌항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내사면 양지공

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이 학교는 1911년 내사면 양지리에 만들어졌으며, 수업 연한은 4년이었다. 1912년 3월 25일 제 1회 졸업생 15명을 배출하였으며, 초대교장은 小川興五郎이었다.[38]

38) 『용인군지』, 621쪽.

이처럼 1919년 3월 21일 원삼면 좌전고개에서 시작된 만세시위운동은 용인지역에서 전개된 최초의 3 · 1만세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이 지역의 3 · 1운동은 원삼지역의 의병전통과 사금광 개발 등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재판기록 외에 보다 많은 자료 발굴을 통하여 이 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원삼지역의 애국교육운동 및 청년사회활동

원삼지역에서 전개된 항일운동은 이 지역 의병투쟁의 전통과 사금광 개발로 인한 반일정서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기울어가는 국운을 되살리려는 지역유지들의 애국적 교육운동과 청년들의 사회활동, 종교인들의 활동에도 끼친 바가 적지 않다.

원삼면 지역의 애국교육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교가 바로 삼악학교(三岳學校)이다. 삼악학교라는 이름은 설립자인 여준(呂準, 1862~1932) 선생이 원삼면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3개의 커다란 산봉, 즉 남동쪽의 구봉산, 서북방향의 문수산, 서쪽의 쌍령산을 일컬어지었다고 한다. 1907년 12월부터 이승훈(李昇勳) 등 신민회 인사들과 함께 평양에서 오산학교(五山學校)를 설립해 우리 역사와 지리 · 법학 등을 가르쳤던 여준은 1908년 고향인 원삼면 죽릉리(陵村, 일명 능말)에서 구국운동에 나설 인재를 양성하고자 사설학교를 세웠던 것이다.

1908년 9월 19일자에 실린 당시 기사에 따르면, "竹山郡 遠三面 陵村 三岳學校는 이 마을 사는 呂準이 吳台善 · 吳龍根 등과 협의해 창설하였는데, 같은 마을 사는 前 主事 吳恒善이 자기 집을 기부했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39]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여준은 가족과 형님이 살고 있는 능촌을 방문해 이 지역 유지이며 외가쪽인 해주 오씨 친척인 오태선 · 오용근 등과 학교설립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그의 재당질 사위인 오항선(후일 원삼면장 역임)이 자기 집을 기부해 학교를 건립했던 것이다.

39) 『대한매일신보』1908년 9월 19일자 「雜報」. 이와 달리 삼악학교가 1906년경 문촌리 문시랑 마을 이주국 장군의 생가(현 정영대 가옥)에 세워졌다는 기록도 있다. 1906년 이 마을에 세워진 문촌리장로교회의 약사에 의하면, 이 교회 초대장로인 吳建泳 목사가 삼악학교의 훈도를 지내 교육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마을 뒷산에 있는 그의 묘비명에도 고인이 1906년 삼악학교 訓導를 지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만일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삼악학교는 최소한 1906년 이전에 문촌리에 세워졌다가 1908년 죽릉리로 이전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문촌리 유학자인 鄭觀海(1873~1949)의 일기인 『鄭瀾齋日記』에는 삼악학교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준이 1912년 오산학교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서간도로 이주했으므로, 삼악학교의 운영은 오태선과 오용근에게 맡겨졌다. 당시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초등교과에 해당하지만, 우리 역사나 지리, 수신 등을 가르쳐 민족교육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40] 삼악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는 후일 신흥무관학교와 광복군에서 교관을 지내며 무장투쟁을 선도한 오광선 등이 있어 그 지향점을 추측할 수 있다.

삼악학교가 언제까지 존속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최소한 1917년까지는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준이 그의 뒤를 잇기 위해 오산학교 1회 졸업생인 김도태(金道泰)를 보냈는데, 그가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인 1917년까지 근무했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이다.[41] 이후 1920년 4월 원삼면 죽릉리에는 죽릉강습소가 개설되었고, 이 강습소는 1924년 원삼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면서 자리를 옮겨졌다고 한다.

당시 용인의 신식교육은 1909년 기흥지역에 세워진 명륜학교(明倫學校, 후에 용인공립보통학교)와 1911년 양지리(陽智里)에 세워진 추양학교(秋陽學校, 후에 양지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1915년 김량장리에 세워진 김량장공립보통학교와 1924년 원삼공립보통학교, 1929년 모현국민학교가 개교하였다.

강습소에 머물러 있던 원삼면에 근대적 학교가 설립된 시기는 1924년에 이르러서이다. 당시 일간신문인 『조선일보』(1924년 10월 15일자)는 기사에서 "용인군 원삼면에서는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할 계획 중"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또 지역유지들이 학교부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연안김씨 고원군군사공파(延安金氏 高原君 郡事公派, 대표 金儁)에서 부지를 희사하여 1924년 10월 9일 원삼보통학교로 개교할 수 있었던 것이다.[42]

원삼면 독성리에 위치한 원삼보통학교(학교장 兒玉平一郎)는 1933년 당시 4년 과정으로서 모두 4학급으로 156명(여자 28명)에 3명의 교직원이 근무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학교는 1938년 일제의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원삼심상(尋常)소학교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1년부터 원삼국민학교로 개칭되었는데, 竹本弼善 등이 학교장을 맡았다.[43]

1944년 이 학교에 입학한 신응철 옹(1936년생, 원삼면 좌항리 거주)은 당시 학교가 한 학년에 2개 학급이 있었으며, 일본인 선생들이 칼 차고 수업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40) 김태근, 「呂準(1862~1932)의 민족운동 연구」(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8), 28~32쪽.

41) 「倭政人物錄」6권.

42) 『조선일보』1924년 10월 15일자 ; 『朝鮮總督府統計』1924년 10월 5일자.

43) 『朝鮮總督府統計』1933년 ; 「구한말과 일제시대 용인군내 관리직원록」, 용인군, 1992.

한편, 원삼지역에는 근대 교육도입과 더불어 일찍이 기독교와 천도교 신자들이 산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06년경부터 문촌리와 고당리 일대에 문촌리장로교회와 성당이 설립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김대건 신부의 수난지인 미리내 성지와 남곡리 등과 연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촌리출신인 오건영(吳建泳) 목사(1882~1961)는 평양 대성학교와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귀국해 문촌리장로교회의 초대장로를 맡았는데, 비타협적 민족주의 성향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44]

44) 「문촌장로교회 약사」(1960년경 작성)

이러한 경향은 이후 1919년 원삼지역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용인지역의 기독교는 1894년 백봉교회와 이듬해 아리실 교회, 그리고 1905년 용인교회 등이 설립되어 급격히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또한 1921년 천도교의 신문화운동 보급에 따라 용인에도 29명이 입교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45]

45) 『天道教會月報』120호(1920년 8월)

천도교 세력 역시 3·1운동 이후인 1921년부터 신문화운동을 전국에 적극 보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용인에서도 29명을 입교시키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천도교 용인청년동맹은 1929년 9월 31일 용인군종리원에서 설립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대표위원에 송재문(宋在文)을 선출하고, 상무위원에 심인경(沈仁慶), 집행위원에 박영찬(朴永燦) 등 4명, 그 밖에 감찰위원과 고문 등을 각각 선임하였다. 용인청년동맹은 관내지역의 순회강연과 강좌 등 계몽활동을 비롯해 매주 일요일 시일강연을 통해 회원의 교육훈련과 한글보급운동을 적극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46]

46) 『天道教會月報』234호(1930년 6월)

이처럼 용인과 원삼면 일대에는 기독교와 천주교, 천도교 등 종교활동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기초사료가 부족해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6. 일제의 전시동원체제와 원삼 주민들의 저항

일제는 조선 각지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1910년부터 전국의 토지에 대한 조사사업을 벌였다. 조사의 명목은 공유지와 사유지에 대한 구분과 조사를 통해 근대적인 토지 소유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양척식회사를

앞에 내세운 일제는 전국에 산재한 역둔토 등 국유지를 강점하고 무지한 농민이나 의병집안 등의 미신고 농지를 총독부 소유지로 접수하여 가장 큰 대지주가 되었다.

일제의 강압적인 토지조사사업과 소작권 탈취 등으로 인해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겨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부득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용인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 용인의 수여면 역북리는 9할 정도의 토지가 동양척사회사 소유의 토지였는데 소작인의 소작권을 탈취, 일본인 이민의 할당지로 정하자, 소작농가 180여호 가운데 70여호가 채마(菜麻) 밭마저 갖지 못하여 노동생활로 근근이 연명하다 그도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이사를 가려해도 가산을 살 사람마저 없는 지경이라 여비마저 마련하지 못하였다.[47]

47) 『동아일보』1928년 5월 2일자.

고 할 정도였다. 이처럼 일제의 토지수탈로 인해 용인과 원삼면 지역 농민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한 실정이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에 이어 소작권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1934년 소작조정령을 발표하였다. 또 농촌 진흥책의 일환으로 자작농(自作農)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자작농 창정사업(創定事業)을 벌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인 대지주나 친일지주, 그 밑에서 일하는 마름의 행패는 끊이질 않았다. 오히려 이중삼중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소작농민의 부채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1930년 들어 풍년이 들었지만 용인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 농사비용을 갚지 못해 벼를 논에 세워둔 채 차압을 다하는 형편이었다. 품팔이로 나선 농민들은 우차부 노릇도 하였다. 그러나 수원-여주 간의 경동철도가 건설되자 그마저 일거리가 떨어지고 삯전도 50~60전에서 20전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지주들은 농산물가격의 폭락과 일본으로의 쌀 수출의 길이 막히자, 그 피해를 각종 수단을 통해 소작농민에게 전가하였다. 일년내내 농사를 짓고도 초근목피로 연명하게 된 농민들은 도시로, 만주로, 일본으로 떠났으며 그도 안되면 걸인이 되어 떠돌아 다녔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원삼면 역시 일제와 친일지주의 토지수탈, 강제·노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일제의 수탈과 함께 강제노역의 실태가 이러다 보니 농민의 저항과 투쟁도 끊이질 않았다.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1937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용인군의 소작쟁의는 93건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38년 파종기가 당도하여도 소작쟁의는 더욱 격증하였다"는 기사가 실릴 정도였다.[48]

48) 『동아일보』1937년 8월 24일자.

일제는 1931년 만주침략으로 전시체제에 본격화되자, 식량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소작조정령, 농지령과 함께 농촌진흥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춘궁퇴치', '자력갱생'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전개된 농촌진흥운동은 '갱생'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농촌의 궁핍화로 치열해진 농민의 저항운동을 통제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 농촌을 재편성하려는 정책이었다. 총독부는 그 산하 각급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들은 물론 순사, 금융조합직원, 학교교사까지 총동원하였다. 그 실현방법은 자력갱생을 주안으로 하고 농가의 자각을 제일로 하는 정신운동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일제는 농촌진흥회를 통해 '농민들의 자각적 노력'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발전해오던 각종 농민단체, 야학 등을 진흥회에 강제로 흡수하여 버렸다.

이러한 일제의 회유와 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궁핍해진 조선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더욱 거세게 일었다. 1933년부터 1939년까지 7년동안 조선 각지에서는 13만 6천여건의 쟁의가 발생하였다. 특히 1939년은 소작쟁의가 발생한 이래 최고인 36,799건이 발생하였다. 용인농민도 소작쟁의를 매우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용인소작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용인군의 소작쟁의가 1937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93건이 발생하였다. 용인군 소작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였으나, 1938년 봄 파종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작쟁의는 더욱 격증하였다.[49]

49) 『동아일보』1937년 8월 24일자 ; 1938년 4월 25일자.

경제공황으로부터의 탈출로를 중국대륙의 침략에서 찾고자 한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이 때부터 일제는 조선의 인적 물적자원을 전쟁에 총동원하기 시작하였다. 1938년에 일제는 소위 국가총동원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938년 지원병제를 실시하더니 이듬해에는 노동자를 모집해 군수물자 생산, 군용건설 작업에 동원하였다. 일제는 물적자원의 강제동원을 위해 1937년 중요산업통제법을 실시하여 조선의 공업을 일본 독점자본에 예속된 군수산업체계로 재편성하였다. 1939년에는 쌀의 공출제도, 배급제도를 실시하고 소작료통제령을 실시하여 어떤 소작쟁의도 전시체제의 국가 총동원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만들었다. 일제는 이러한 전시동원체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1942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청년을 군대로 끌고 가더니, 드디어 1944년에는 징용제를 실시하였다.

1938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지원병제의 실태는 당시 용인 원삼면 문촌리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관란재 정관해(鄭觀海, 1873~1949)의 일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무인년(戊寅年, 1938년) 12월경에 남긴 그의 글은 다음과 같다.

"백암(白岩)에서 뽑힌 지원병들은 보통학교 졸업생 중에서 신체강건한 자를 택해 몇 개월동안 훈련한 다음 전장으로 간다고 한다. 오호라. 이것이 비록 처음이라 하지만, 끝까지 그리할 것 같고, 곧 당연히 이를 강제로 할 것이다. 장차 이를 어찌할고"[50]

50) 『鄭觀齋日記』戊寅年(1938년) 12월 5일자(국사편찬위원회 편, 2001), 851쪽.

그의 우려처럼 일제의 강제징병과 징용, 공출과 강제노역 동원은 극심하였다. 1940년에 이르러 그는 아들 정영대(鄭榮大, 1911~1999)가 지원병으로 입소하게 되어 그 잔별식(殘別式)에 참석한 바도 있었다. 그때 용인 인근과 원삼면의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갔다고 한다. 이어 전쟁말기인 1945년에는 마을 곳곳에 징병과 공출이 매우 심했는데, 인근 친척들도 징집당하여 모두 이를 원망하였다고 한다.[51]

51) 『鄭觀齋日記』, 964~965쪽 ; 1037쪽.

강제징병과 함께 강제징용도 심각하였다. 당시 17세의 나이로 징용에 끌려가 홋카이도(北海島)에서 탄광일을 했던 안치양 옹(1923년생)은 용인 원삼면에서 자행한 징용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지긋지긋한 막장 인생과 인연을 처음 맺은 것은 16살 때였다. 동네에는 당시 일본사람들이 시작한 광산이 번성하고 있었다. 잘은 모르지만 3.1만세운동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들었다. 나는 탄광에서 물을 퍼내는 일을 했다. 얼추 2년을 다녔을까. 17살 되던 해 영장이 나왔다. 징용이었다. 주위에선 일본이 경영하는 광산 일을 하는 만큼 징용을 빼줄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냥 응했다. 어차피 이번에 피한다고 해도 언젠가 다시 가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당시 동네에선 둘이 징용을 나갔다. 한 살 적은 조용산과 동행했다. 나중 일이지만 그는 6.25때 사상에 휘말려 죽었다. 아무튼 징용을 가던 해는 1942년 한 여름이었다. 원삼면 사무소에 모여 보니 30여명이 나와 있었

다. 우리는 함께 용인군청으로 갔다. 얼추 80~90명은 돼 보였다. 거기서 일본 탄광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줘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았다. 군청 내 넓은 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수여선을 이용해 수원역을 거쳐, 다시 기차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했다. 다시 하룻밤을 자고 나가보니, 부둣가에 큰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배 안에서는 따로 움직여 얼마나 되는 인원이 한 배를 타고 갔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최종 도착한 곳은 일본 규슈(九州)를 거쳐 홋카이도(北海島)였다....(중략)...일제가 나에게 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 생계를 이끌어 오신 홀어머니 임종마저 지키지 못한 것도 일본(놈들) 때문이었다.

결혼 다음날이 훈련 소집에 응하는 날이었다. 아마 전쟁 말기 물자와 군인들이 부족했던 그들이 다시 군대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 소집 장소인 양지까지 가기 위해선 첫 닭도 울기 전 새벽 3시께 집을 나서야 했다. 당연히 첫날밤도 제대로 못 보내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만 것이다. 집사람은 결혼 첫날, 시어머니 장례를 치러야 했다. 그 한과 원망을 누구에게 하소연한들 이제 와 무슨 소용이 있으랴."[52]

52) 안치양 옹(82세, 원삼면 독성리 거주) 구술증언(우상표 기자, 『용인시민신문』2005년 8월 11일자).

이처럼 전시동원체제하에서 조선 농민과 용인 원삼주민들의 생활은 해방이 되기까지 일제에 의한 강제징병과 징용, 공출 등으로 비참한 생활을 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례는 용인 원삼면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었다. 『용인시민신문』에서 2005년 8월 일제강제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60여만 명의 피해자 중 용인출신 강제연행자는 총 3,963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그나마 문서로서 확인된 인원일 뿐, 군부와 기업체의 위안부나 이중징용자 등을 합하면, 그 규모는 가히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이다. 안치양 옹과 같은 강제징용자들은 일본 홋카이도를 비롯해 규슈와 남양군도, 인도네시아 뉴기니, 버마, 필리핀 레이테섬, 민나나오섬 등으로 보내져 가혹한 수탈과 학살을 당해야 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일제패망으로 인한 해방의 소식은 전 민족과 용인시민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생명의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일제시대의 원삼면 지역에서 특기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동양의 진주'로 불리며 무용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신무용의 개척자 최승희(崔承喜,

1911~?)가 1930년대에 원삼면 문촌리에 살았다는 점이다. 일본 도쿄에 유학해 무용계에 입문한 이후, 민족적 색채가 강하면서도 세련된 현대적 감각을 보인 최승희는 1931년 문필가인 안막(安漠, 본명 安弼承)과 결혼해 이곳 원삼면 문촌리 417번지에 신혼살림을 갖게 된다.[53]

그녀가 용인 원삼면에 둥지를 트게 된 것은 안막의 모친인 오옥경이 이곳에 시집을 와 살았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그녀는 이곳에서 첫딸 승자(후에 성희로 개명)를 낳고 약 5년간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수제자이면서 부채춤과 화관무를 창안해 한국무용의 기틀을 다진 김백봉 역시 17세때 안막의 여동생인 안제승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와 안막은 이후 1937년부터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남미 등을 순회공연하며 세계적인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안막의 동생 안제승이 용인에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예술가 집안이 용인 원삼면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은 매우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54]

53) 「안막 제적등본」 ; 정병윤(1931년생, 원삼면 문촌리 거주)의 구술증언(2005. 11. 5) 참조.

54) 박석분 · 박은봉, 『인물여성사』, 새날, 1994, 215~229쪽. 『용인시지』(2005년 12월 발간예정)에 최승희 편을 소개한 김장환은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가 용인에 적을 둔만큼, 그의 예술세계를 연구계승하는 연구소나 무용전수관 설립은 물론, 세계무용제나 페스티발 등의 무용축제 행사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제3절 원삼면의 현대사

1.해방과 미군정의 실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고대하던 민족해방의 날이 찾아왔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숨죽여 살았던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맘껏 누렸으며, 중국과 일본, 북해도 등지로 강제징용 당했던 일부 형제자매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만 일본 사람들은 쫓기듯 본국으로 돌아갔고, 일제 치하에서 권세를 누렸던 이들은 모두 서울로 도망갔다. 특히 일본인 밑에서 일했던 조선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뿐, 미국과 소련군이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에 각각 주둔하며 군정을 실시하였다. 용인지역 역시 1945년 9월 25일 미 육군 소위 테스렌스가 일본인 경찰서장(築地睦雄)으로부터 경찰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군정을 시작했다.

이러한 군정실시에 대해 한국민들이 자주독립의 열망은 뜨거웠다. 1945년에 1946년까지 한반도 전역의 각 도 · 시 · 군 · 읍 · 면에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던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포천 · 시흥 · 수원과 용인지역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군(郡)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민위원회들은 군청 청사를 인수하거나 면 사무소를 차지하여 군 업무를 수행하였다. 심지어 용인에서는 경찰 및 군청 직원들의 과거를 다루기 위한 인민재판소가 세워진 바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1945년 12월 2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여겨진다.[55]

하지만 이 자치활동은 곧 미군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7월까지 3년 동안 미군정 치하에 있었다.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정책에 대한 제주와 대구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해 5월 10일 전국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용인 지역에서도 일부 공산세력의 선거 방해활동이 있었지만, 약관 29세의 민경식(閔庚植)씨가 초대 제헌의원으로 당선되었다.1948년 당시 용인의 인구가 91,711명인데 이중 37,131명이 투표하여 이중 22,468표를 획득한 것이다.

이어 해방후 초대 용인군수는 고주현씨가 임명되어 1948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 역임하였다. 해방 후의 초대 원삼면장은 일제 식민시기에 면장을 지낸 바 있는 백남규 씨가 1947년까지 역임하였다. 이후 신응철 씨가 1948까지 맡았으나, 윤치주(1948~1950)에 이어 다시 신응철씨가 1955년까지 맡았다.[56]

한편, 해방이후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좌우익의 분열 대립현상은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용인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용인군 내에서도 외사면과 남사면에 좌익계의 활동이 심하였다고 한다. 해방직후 용인군의 우익진영인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大韓獨立促成青年聯盟)에 가입해 공산계 청년들과 대항했던 민세식(閔世植, 1927~1984)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용인에서도 남사면 무봉산 싸움, 외사면의 구봉산 싸움은 참으로 치열하였다. 약 300명의 좌익청년들과 60여명의 우익 청년들과의 충돌이었다. 이 싸움에서 부상자도 많았었다. 경찰의 개입으로 무기를 들고 있던 공산당 책임자들은 연행되고, 흩어지고 말았다. 이 무봉산 사건이야말로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싸움이었다."[57]

55) 브루스 커밍스 저,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총서, 1986, 427~429쪽.

56) 『용인군지』, 193 ; 276쪽.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환국인사들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신탁통치방안에 맞서 전국적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우익인사들은 신탁통치 반대와 좌익의 발호에 맞서 1947년 9월 광복군 사령관을 지낸 지청천(池靑天) 장군을 단장으로 한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을 결성하였다. 청년단은 부단장에 이성주 · 이선근을 비롯해 용인 원삼면 죽릉리 출신의 광복군인 오광선(吳光鮮)을 임명하였다.

대동청년단은 1949년 12월 19일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단장 안호상)으로 개편되었다. 당시 대한청년단 용인군단 훈련부장을 맡았던 민세식(閔世植)씨는 용인 각면을 돌며 반공청년들을 규합, 기초훈련부터 전투훈련까지 시켰다고 한다. 이후 용인지역의 청년방위대로 편성된 이들은 각 면별로 자체 방위훈련을 거듭하며, 장차 벌어질 민족상잔의 비극에서 고향을 지킬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다.

57) 「閔世植의 日記(1984년 1월 작성)」. 이 일기는 아들 민병익(1950년생, 경기도 고림리 출생)이 소장하고 있다.

2. 한국전쟁과 원삼면의 피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물밀 듯이 38선을 밀고 들어온 북한군은 삽시간에 경기 북부와 서울을 점령하였다. 북한군이 광주를 거쳐 용인 지역에 당도한 시기는 1950년 7월 3일경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용인에 진입해 온 길은 대체로 풍덕천 방면과 광주-모현면을 거친 유방리 쪽이었다. 북한군 제3사단은 신사리 →판교 →풍덕천 →수원방향으로 공격을 시도하여 국군이 수원을 철수하기 전 수원을 점령하여 포위망을 형성하려 했다.

그러나 7월 2일 국군 보병학교 연대가 판교 방면으로 가던 북한군 차량대열을 공격, 모두 파괴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상당기간 저지하였다. 또 7월 4일 북한군 제3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풍덕천에 투입된 국군 제1사단과 전투가 벌어져 북한군의 집요한 파상 공격을 잘 저지하였다. 그러나 끝내 중앙 돌파를 당하자, 국군 제1사단은 수원을 경유해 평택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7월 3일 북한군 제2사단은 경기도 가평에서 양수리를 경유해 용인 모현면을 거쳐 저항없이 김량장에 도착하였다. 북한군이 김량장에 들어오기전 유방리 무수막에서 국군 제8연대 2대대와 교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삼면을 포함한 용인 전 지역은 대체로 7월 7일경에는 북한군에 점령된 것으로 보인

다. 용인 지역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은 즉시 군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여 용인 지역을 통치하여 청년들을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하였다. 이들은 이른바 인민재판을 열어 많은 반공인사를 체포, 학살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1일 양지면 대대리에서는 반공인사 187명이 집단 학살당하기도 하였다.[58]

1950년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탈환 후 용인 각지에서도 후퇴하는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전세가 역전되면서, 공산치하에서 부역한 자를 색출하기 위한 반공 유격대가 이동면과 백암면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런 와중에 원삼면에서도 일부 좌-우익 양 치안대에 의한 민간인 징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패잔하여 북으로 후퇴하던 북한군들이 반공인사들을 학살하는가 하면, 국군의 수복이후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였던 '좌익분자' 수백 명이 체포되어 학살당하기도 한 것이다. 좌우익 갈등에 의한 원삼면에서의 희생자들은 바로 사암리 안골일대의 사금광 폐광 구덩이에 주로 매장되었다고 한다.[59]

58) 용인군, 『용인시사연표』, 67쪽.

평양을 넘어 압록강 강변까지 진격한 국군과 유엔군은 그러나 1950년 10월 25경부터 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에 의해 후퇴하여야 했다.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에 의해 국군은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내주고 만다. 모현과 원삼면을 비롯한 용인지역은 1951년 1월 5일경 미군25사단 27연대와 중공군 사이에 전투가 수원 남방에서 벌어졌다는 기록에서 보듯, 대체로 1월 5일경 다시 적 수중에 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다시 용인지역이 적 수중에서 벗어나 탈환된 것은 터키군에 의해 김량장동을 탈환하고 김량장 서쪽 2.8km 떨어진 151고지를 점령한 1951년 1월 27일경에 이르러서이다.

59) 정병윤(1931년생, 원삼면 문촌리 거주), 신응철(1936년생, 원삼면 좌항리 거주) 등의 구술청취(2005년 11월 5일).

6 · 25 전쟁에서 용인 주둔 국군은 작전상 후퇴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1 · 4후퇴와 수복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명과 주택 · 관공서 · 가축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공산군의 치하에서 호된 고난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은 남으로 피난을 떠났다. 당시 용인지역 청년들의 후송책임을 맡았던 대한청년단의 편대장이던 민세식(1927년생) 역시 가족들과 대원들을 이끌고 경남 경산까지 후퇴하였다고 한다. 그는 교육대의 대대장으로서 김해에서 근무하다가 서울과 용인이 재탈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환하였다고 한다.[60]

60) 「閔世植의 日記」(1984년 1월 작성)

1950년 1월 10일경 용인에는 서울 등지에서 밀려든 피난민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미 국군과 미군은 중공군에게 쫓겨 오산까지 후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인에 있는 피난민들은 중공군과 북한군에게 포위를 당한 상태였

다. 다행이 중공군에 의한 피해는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죽전지역에서는 미국 전투기에 의한 민간인 오인사살도 발생한 바 있는데,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목격자들에 의해 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용인지역에서는 특히 북한군과 터키군의 격전이 벌어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51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량장과 151고지를 장악하기 위해 터키여단이 북한군을 공격하여 474명을 사살하고 23명을 포로로 잡은 것이다.[61]

이 과정에서 시가전이나 백병전이 벌어져 다른 곳에 비해서 피해 정도가 심하였다. 또 수복 후 용인지역에 국군과 유엔군이 주둔하면서 학교나 관공서 시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학교와 관공서의 기물이 불태워지고 심지어는 학적부등 학교 중요 문서가 타버리기도 하였다.

61) 용인군, 『용인시사연표』, 67쪽.

또한 당시 원삼면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로부터 밀려온 피난민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면사무소에서는 피난민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주로 옷가지나 안남미 등 의류와 쌀을 나눠주었다고 한다. 이들은 피난민 구호를 위해 용인읍내로 마차를 끌고 가 쌀을 직접 실어와 나눠 주었다고 한다.

6 · 25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원삼면 출신 국군의 전사자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所 屬	階 級	姓名	戰死日字	住 所
陸軍	下 士	李 鍾 大	1953. 2. 9	文村里 417番地
陸軍 8107部隊	二等中士	金 俊 熙	1952. 6. 4	木新里 631番地
陸軍 8107部隊	上 兵	鄭 相 雲	1950. 6. 25	杜倉里 881番地
陸軍 8107部隊	兵 長	朴 桂 玉	1950. 12. 10	篤城里 469番地
陸軍 8218部隊	一 兵	朴 允 吉	1951. 9. 18	杜倉里 143番地
陸軍 下 士	一 兵	朴 正 雄	1963. 10. 7	木新里 235番地
陸軍	下 士	朴 萬 植	1969. 12. 3	杜倉里 99番地
陸軍	一 兵	吳 信 根	1950. 6. 25	文村里 162番地
陸軍 1372部隊	下 士	金 德 中	1950. 6. 25	彌坪里 237番地
陸軍 5010部隊	一等中士	許 政 旭	1951. 12. 22	砂巖里 417番地
陸軍 5816部隊	一等上士	李 範 贊	1952. 10. 3	砂巖里 461番地
陸軍 6185部隊	一 兵	吳 培 根	1951. 11. 5	學日里 224番地

所屬	階級	姓名	戰死日字	住所
陸軍 5716部隊	二 兵	吳 世 松	1950. 6. 28	學日里 517番地
陸軍 5010部隊	一 兵	安 喆 萬	1951. 8. 8	文村里 162番地
陸軍 5010部隊	一 兵	李 喜 壽	1961. 6. 8	杜倉里 1456番地
陸軍 10聯隊	一 兵	洪 又 榮	1950. 7. 27	佐恒里 162番地
陸軍 11聯隊	一 兵	李 源 基	1950. 6. 25	佐恒里 71番地
陸軍 17聯隊	一 兵	韓 泰 源	1950. 6. 25	高塘里 54番地
陸軍 1師團	一 兵	李 敏 夏	1950. 6. 25	高塘里 54番地
陸軍 5439部隊	一 兵	李 銀 錫	1950. 8. 20	砂巖里 694番地
陸軍 8127部隊	下 士	金 思 賢	1951. 10. 16	砂巖里 364番地
陸軍 3030部隊	一等中士	申 鉉 七	1953. 6. 12	砂巖里 458番地
陸軍 1372部隊	二等中士	尹 錫 善	1950. 6. 25	砂巖里 394番地
陸軍 2師團	一 兵	金 萬 寧	1950. 6. 30	砂巖里 18番地
陸軍 5729部隊	二等中士	申 貞 遠	1952. 10. 11	佐恒里 160番地
陸軍 17聯隊	二等中士	申 慶 澈	1950. 7. 25	佐恒里 217番地
陸軍 5師團	一 兵	金 永 周	1951. 1. 1	佐恒里 61番地
陸軍 7255部隊	一 兵	李 萬 榮	1952. 12. 3	佐恒里 110番地
陸軍 8352部隊	一等中士	李 昶 植	1953. 6. 17	彌坪里 117番地
陸軍 3887部隊	二等中士	玄 元 鳳	1950. 11. 12	加佐里 18番地
陸軍 6037部隊	下 士	康 漢 杓	1953. 6. 12	杜倉里 719番地
陸軍 8218部隊	二等中士	尹 銅 求	1952. 9. 3	杜倉里 1454番地
陸軍 5788部隊	二等中士	田 相 殷	1952. 10. 19	篤城里 430番地
陸軍 13聯隊	一 兵	韓 寅 錫	1950. 6. 25	篤城里 238番地
陸軍 5767部隊	二等中士	金 孟 春	1953. 7. 22	學日里 557番地
陸軍 21聯隊	一 兵	吳 衡 根	1950. 6. 25	學日里 475番地
陸軍 首都師團	一 兵	鄭 洛 奎	1950. 6. 25	竹陵里 98番地
陸軍 首都師團	一 兵	李 培 熙	1950. 7. 25	佐恒里 132番地
陸軍 5729部隊	二 兵	李 泰 喆	1951. 7. 11	砂巖里 664番地
陸軍 1631部隊	一 兵	金 星 客	1951. 11. 15	孟 里 320番地
陸軍 11聯隊	一等中士	韓 贊 敎	1949. 8. 10	篤城里 238番地
陸軍 1訓練所	二 兵	趙 麟 基	1952. 9. 1	高塘里 66番地
陸軍 6037部隊	一 兵	嚴 相 翊	1953. 5. 27	高塘里 305番地
陸軍 5013部隊	二 兵	洪 性 職	1956. 12. 20	佐恒里 154番地
陸軍 222砲隊	一 兵	李 康 周	1955. 2. 6	篤城里 240番地
陸軍 5788部隊	一 兵	吳 翫 泳	1953. 5. 27	竹陵里 382番地
陸軍 7830部隊	軍 屬	李 相 哲	1951. 2. 1	文村里 157番地
陸軍 5001部隊	軍 屬	金 春 植	1953. 3. 23	高塘里 303番地

所屬	階級	姓名	戰死日字	住所
陸軍 5050部隊	軍 屬	尹 應 燮	1953. 1. 15	砂巖里 938番地
陸軍 5050部隊	軍 屬	李 在 浩	1951. 10. 7	木新里 621番地
海兵 靑龍部隊	上 兵	金 亮 一	1967. 2. 17	竹陵里 237番地
警察	巡 警	李 世 秉	1950. 6. 25	佐恒里 190番地

〈출처 :「용인군지」163~164쪽〉

3. 농도원의 농촌활동과 원삼면 새마을운동

한국전쟁 이후 용인지역은 여전히 가난과 소외의 땅이었다. 더욱이 원삼지역은 교통과 산림의 미개발로 농업에 의존하던 실정이었다. 원삼지역에 본격적인 농촌개발과 기업체 이주로 인한 변화가 일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70년대 초반 새마을 사업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이 지역의 큰 변화는 정부의 강력한 농촌개발사업과 각종 중소기업 공장의 입주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하겠지만 그 시작은 1950년 초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쟁 이후 피폐한 농촌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1952년경부터 원삼면 사암리 일대에서 농촌사업을 벌인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가 세운 복음농도원의 컸다고 할 수 있다. 김용기 · 강태국 장로 등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목회자들은 1952년 1월 선교회를 발족한 이후 교육과 산업, 구제와 선교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들은 우선 산업을 통한 전도를 목표로 농촌사업을 본격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이들은 용인의 원삼면 사암리와 미평리 일대를 답사하고 이 곳을 중심으로 농촌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하였다. 원삼면에 농도원을 세우게 된 과정을 강태국 장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52년 1월 10일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발족시에 결의한대로 산업을 통하여 전도하려고 선택한 것이 농촌사업이었다. 그 사업의 책임자인 김용기 장로는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라고 하는 곳을 답사하고 와서 보고하였다. 그의 보고에 따라 나 역시 답사한 결과 농촌사회의 터가 될만한 곳이었다. 나는 사암리와 그 밑에 있는 미평리에 약 6만평 가량의 농지를 구입하였다. 그리하여 사암리에는 복음 농도원이라는 이름 아래서 농촌개혁의 지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그 책임을 김용기 장로에게 일임하였

다.....(중략)...그리고 미평리에는 복음 농민전수학교를 설립하여 이근태 장로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 이 장로님은 나와 동년배인 숭실전문학교 선배였다. 내가 이 학교를 설립한 목적은 전국 복음화를 위한 일꾼 양성에 있었다. 학제는 3년이었고, 입학 자격은 국민학교 졸업 이상으로서 등록금도 받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타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기숙사와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문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농장에서 실습을 하게 하였다. 그 목적은 학생들이 후일에 농촌 지도자가 되려면 그들 자신이 먼저 과학적인 농사 기술을 터득해야 하겠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의 마을에 돌아가서 성경서당을 시작하고 농촌 청년들에게 성경과 찬미를 가르치는 동시에 과학적인 농사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으로 농촌 청소년들의 정신을 개량하고 농업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꿈을 알지 못하는 농민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를 원치 않았다. 그 이유는 "일이나 하려면 학교에 아니간들 못하랴"라는 망국의 사상 때문이었다. 우리 농민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목적은 하다못해 면서기 자리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출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상은 농민들만이 아니고 우리 겨레 전체의 사상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나는 다년간 이 학교를 운영하며 농업 전수학교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의 인가까지 받아 운영하다가 1965년 2월에 폐교하고 말았다."[62]

62) 강태국, 『나의 증언』, 1988, 성광문화사, 154~155쪽.

위의 회고에서 알 수 있듯이, 김용기 · 강태국 등 복음주의 선교회 선교사들은 농촌교육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원삼면 사암리와 미평리 일대에서 농촌계몽단체인 농도원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농민전수학교인 농도원에서 국민학교를 마친 학생들에게 무료로 글자뿐 아니라 농업기술을 가르치며 영농사업을 일구기 시작했다. 농도원은 농업전수학교라는 이름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1965년 폐교하고 말았다. 하지만 농도원을 거쳐간 졸업생들은 중등과정 학교로 진학하여 지역의 일꾼이 되거나 태국 등 외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또는 다른 지방에서 목회와 영농사업을 함께 하는 목회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2:41 농도원

농도원은 이후 수년간 과수원과 축산업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과실에 비해 수입이 형편없어 적자를 거듭하였다. 이들은 이후 소 · 돼지 · 닭 등 축산업도 병행하였다. 농도원 일꾼들은 원삼면에 축산을 하면서 신품종을 도입하여 면 전체에 보급하였다고 한다. 또 옥수수 종자를 비롯해 곡식 종자를 미국에서 가져와 번식시켰다.

그러나 농도원은 계속되는 적자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복음 농민전수학교와 함께 문을 닫고 말았다. 이들이 원삼면 지역에 남긴 것은 과수원과 축산업의 신품종 뿐 아니라, 좌항리와 맹리 등에 교회를 남긴 일이다.

"(원삼면) 좌항교회는 처음 농도원에서 시작할 때 에덴교회라고 하였으나 장소를 미평리로 옮기면서 좌항 성서교회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역사는 오래 되었다. 나는 수십 년간 이 교회를 보조하였고, 맹리교회는 중앙성서 교회가 수년간 보조하였으나 현재는 다 자립하고 있다.[63]

63) 강태국, 『나의 증언』, 157쪽.

이처럼 농도원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의 농촌활동은 원삼면의 농업과 축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을 뿐 아니라 선교활동 등 주민들의 종교생활에도 영향을 끼쳤다. 농도원의 농촌활동은 이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농업전수학교인 가나안 농군학교로 이어졌다고 한다. 원삼면 지역원로들 역시 이러한 농도원의 농촌활동과 청년운동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 정신이 이곳 농도원의 시험

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평가하기도 한다.

1971년 당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주도된 새마을 사업은 전국의 군과 면 단위에서부터 강력히 추진되었다. 낙후된 농촌의 근대화를 목표로 정부는 '근면 · 자조 · 협동'의 기치아래 생활태도 혁신, 환경개선, 소득증대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군과 면사무소는 농촌마을의 지붕개량과 신작로 개설, 새 농작물 경작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다.

용인군과 원삼면의 새마을운동도 이 무렵 군과 면 사무소 주도로 적극 추진되었다. 지역 농민들의 농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마을마다 트럭을 지원하는가 하면, 두창리를 시범마을로 정해 여러 지원사업을 벌였다고 한다. 새마을사업 시범마을로 지정된 두창리에는 통일벼를 심게 하거나 퇴비증산을 위한 여러 시범사업이 벌어졌다. 원삼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면장까지 지낸 바 있는 신응철 옹(1936년생, 원삼면 좌항리 거주)은 당시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농도원 활동이 이 지역 청년들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이후 새마을운동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죠. 낡은 집과 지붕도 고치고, 부엌도 개량하고, 좁은 골목길도 넓히고....다행이 이곳은 농지가 비옥해 농지세도 많았고, 공판장도 많이 생겼죠. 우리 원삼면이나 외사면, 남사면은 다른 의회보다 재정이 풍부해 다른 면에서 부러워하기도 했죠."[64]

64) 신응철(1936년생, 원삼면 좌항 거주)와의 면담에서 청취(2005. 11. 5)

이처럼 원삼면의 새마을사업은 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주도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원삼지역에 과수원이나 근대화된 중소기업 공장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교육활동으로는 1963년 2월 원삼중학교가 개교한 데 이어, 1971년 두창리에 두창국민학교가 문을 열어 이 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4. 1990년대 이후 원삼면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량화 사업에 이어 원삼면의 변화는 1990

년대에 들어 일어났다. 1990년대에 이르러 국민소득수준이 늘어나면서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었던 골프 등 스포츠사업이 대중화되기에 이르렀고, 그해 1월 원삼면 죽릉리 일대에 태영 컨트리클럽이 건설사업을 승인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해 9월 갑작스런 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현장 사무실이 붕괴되었고, 이듬해 7월 또 한번의 집중호우로 사망 10명 · 부상 5명 · 이재민 200여명 등 큰 손실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발생원인이 골프장 증설에 따른 개발공사에 있다고 판단한 죽릉리 일대 주민 200여명과 목신리 주민 등은 태영골프장의 공사중단과 폭우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시위를 벌였다. 이에 정부의 환경처에서도 용인지역 골프장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경기도에서도 진상조사반이 편성되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용인 · 성남 · 여주의 지역주민들과 대학생들도 나선 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은 이후 태영 컨트리클럽 측의 적극적인 보상작업으로 일단락되었다.[65] 이후 원삼면 맹리에 자리한 지산 컨트리클럽 등에서도 주민들과 적극적인 보상과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지역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업체 측에서는 지역개발 기금을 마련하는 일 뿐아니라, 노인들에게 골프장의 일자리를 적극 마련해 준다든지, 주민 우선채용 등으로 갈등을 해소하려 했다고 한다.

65) 『용인시사연표』 1990. 1~1991. 9 참조.

1996년경 원삼면 사암리 일대로 자리잡은 한국농촌지도소와 농협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사업도 원삼면을 변화시킨 큰 계기라 하겠다. 이후 점차 미곡 중심의 농업위주에서 버섯이나 화훼 등 특수작물과 고추 · 콩 등 곡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확산되었다. 원삼면 친환경 농업을 대표하는 이른바 '오리농법'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개방압력에 맞서 농촌지도소와 농협, 농민들의 오랜 고민과 공동노력의 결과라 할 만하다.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리를 논에 풀어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이 농법은 1995년 처음 시험재배한 이후 '파란하늘 맑은햇쌀'이란 브랜드로 개발되어 경기도 우수농산물로 확정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오리농법에 의해 재배된 쌀은 전용건조장과 저장시설을 새로 지어야 할 만큼 증가되고 있으며 인근 농가로 계속 확대되어 미래 친환경농법의 중요한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2005년 용인시와 농업기반공사에 의해 추진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원삼면 일대를 친환경 농업단지와 '체류형 관광지역'으로 육성하려는 야심만만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이 사업계획에 의하면, 원삼면 독성리와

죽릉리 · 두창리 일대는 농업특화단지와 관광농원을 적극 개발해 농촌마을을 체험하는 동시에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동시에 두창리의 한우단지와 낚시터, 수련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체험특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즉 원삼면 일대의 친환경 농업단지를 인근지역에 있는 MBC문화동산과 용담저수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농촌체험마을로 조성 중인 학일리 아름마을과 용인시 주관의 사암리 우리랜드 등 농촌관광지와 연결짓는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66]

66)용인시 · 농업기반공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인 독성권역 기본계획(안) 1단계(기본구상) 평가자문자료」, 2005.11.에서 재인용(원삼면 제공).

이 사업을 기획 · 추진 중인 원삼면사무소의 한상영 총무담당 계장은 농림부로부터 이 사업을 신청해 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동안 약 7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전문성을 위해 관광학 및 환경학분야의 전문위원들로부터 정기적인 자문을 얻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67]

67) 한상영(원삼면 사무소 총무담당, 2005. 11. 17) 면담으로 청취.

이처럼 향후 연차적인 사업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원삼면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용인의 여타 지역에 비해 친환경농업단지로서 특화된 '맑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우선 원삼면 일대가 모두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의 자연보전지역이므로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한강 상수원인 청미천의 발원지로서 환경보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토지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도 예상되며, 각종 도로의 개통과 정비도 해결되어야할 과제이다. 또 주민의 대부분이 노령농민들로서 생활환경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인근 개발지역과의 상대적 소외감으로 인해 사업참여에 소극적인 점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사암리 일대의 넓은 늪지대를 생태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나, 학일리-문촌리를 통과하는 철탑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원삼면 한상영 계장 역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유도가 향후 사업성패의 관건이며, 후계 농업인력의 양성도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향후 과제에 대해 관공서를 비롯해 기업체-대학-지역주민 등이 상호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찾아갈 때 원삼지역은 보다 맑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고장으로 거듭날 것이라 여겨진다.

(김명섭)